

# 全斗煥大統領 演說文

(統一對話分野)

1986.2.

國土統一院



2102  
211 . . .

# 全斗煥大統領 演說文

(統一對話分野)

1986.2.



211 . . .

國 土 統 一 院

全生大齋驗

卷一



全生大齋驗

本 冊子는 第 5 共 和 國 出 帆 以 後  
1986 年 2 月 現 在 까 지 行 해 진  
全 斗 煥 大 統 領 의  
主 要 演 說 과 記 者 會 見 等 에 서  
統 一 問 題 및 南 北 對 話 關 聯 部 分 을  
拔 萃 하 여 收 錄 한 것 이 니 다 .



# 目 次

## 1980년

9월 1일	第 11代 大統領 就任辭 .....	13
10월 3일	第 4312周年 開天節 慶祝辭 .....	13
30일	1981年度 豫算案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15
11월 14일	日本 NHK-TV와의 會見 .....	15

## 1981년

1월 1일	新年辭 .....	19
1일	「統一日報」와의 會見 .....	19
3일	이집트 「알 아람」紙와의 會見 .....	20
12일	'81年度 國政演說 .....	21
29일	「로스앤젤리스」同胞招請 리셉션時 演說 .....	23
31일	「뉴욕」同胞招請 리셉션時 演說 .....	23
2월 2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로널드 레이건」 美合衆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24
3일	「내셔널 프레스클럽」演說 .....	25
5일	「하와이」同胞招請 리셉션時 인사말씀 .....	26
10일	民主正義黨 大統領候補 選舉演說 .....	26
3월 1일	第 62周年 「3·1」節 紀念辭 .....	27
3일	第 12代 大統領 就任辭 .....	27
14일	第 12代 大統領 當選祝賀 民主正義黨 慶尙北道支部 主催晚餐時 即席演說 .....	29
4월 14일	美國 「타임」誌와의 會見 .....	29

6월 5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開會辭 .....	31
24일	印尼 國營 TV와의 會見 .....	39
26일	「자카르타」記者會見 .....	39
27일	싱가폴 「星洲日報」와의 會見 .....	42
27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44
27일	佛「르 휘가로」紙와의 會見 .....	44
29일	「아마드」말레이시아 國王主催 晚餐時 答辭.....	45
7월 1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후세인 온」 말레이시아 首相閣下간의 共同聲明 .....	46
2일	싱가폴 僑民招請 리셉션時 激勵辭.....	46
2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리관유」 싱가폴 首相閣下간의 共同聲明 .....	47
3일	「푸미폰」泰國 國王主催 晚餐時 答辭.....	48
5일	방콕 「프레스 클럽」演說 .....	50
6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프렘」 泰國首相閣下간의 共同聲明 .....	50
6일	「마르코스」필리핀 大統領主催 晚餐時 答辭.....	51
7일	「마닐라」記者會見 .....	51
8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마르코스」 필리핀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53
25일	인도「PTI」通信과의 會見 .....	54
8월 15일	第 36 周年 光復節 慶祝辭 .....	56
10월 2일	1982 年度 豫算案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57
6일	京鄉新聞 創刊紀念 特別會見 .....	58
13일	「까라소」코스타리카 大統領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59



10월 14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까라소」 코스타리카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60
15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	60
11월 4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	62
10일	「프렘」泰國首相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63

## 1982년

1월 22일	'82年度 國政演說 ……………	67
2월 일	美國「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誌와의 會見 ……	71
3월 1일	第 63周年 「3·1」節 紀念辭 ……………	71
25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	73
4월 19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1982年度 諮問委員研修會 致辭 ……………	75
5월 13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사뮤엘 칸연 도우」 라이베리아共和國 國家元首·民族救濟委員會 議長·總司令官閣下간의 共同聲明 ……………	76
6월 4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發足 2周年 晚餐時 격려말씀 ……………	77
5일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에게 보내는 親書 ……………	78
10일	「모부투 세세 세코 쿠쿠 옹벤두 와 자 방가」 大統領閣下の 公式訪韓에 대한 大韓民國·자이르 共同聲明 ……………	80
7월 23일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을 위한 晚餐時 致辭 ……	80

8월 15일	第37周年 光復節 慶祝辭 .....	83
19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모이」 케냐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83
22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샤가리」 나이지리아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84
24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봉고」 가봉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84
26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디우프」 세네갈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85
9월 4일	1983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86
10월 19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87
12월 23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케난 에브렌」 터키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87
25일	駐韓美軍將兵에게 보내는 聖誕節메시지 .....	88

**1983년**

1월 12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나카소네 야스히로」日本國 總理大臣閣下間의 共同聲明 .....	91
17일	자이르 「살롱고」紙와의 書面質疑에 대한 答辯 .....	91
18일	83年度 國政演說 .....	93
4월 29일	파키스탄 「장」紙와의 書面會見 .....	97

5월 10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退任諮問委員에게 보내는 親書 .....	98
6월 1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全體會議 閉會辭 .....	98
8월 15일	第38周年 光復節 慶祝 및 獨立紀念館 起工式 致辭 .....	103
23일	夏季 記者會見 .....	110
30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新任常任委員 및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	112
10월 4일	國際議會聯盟 서울總會演說 .....	113
20일	「버마」事態 收拾에 즈음한 特別談話 .....	114
24일	1984年度 豫算案 國會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115
11월 12일	「로널드 레이건」美合衆國 大統領 到着歡迎式 歡迎辭 .....	116
12일	「로널드 레이건」美合衆國 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16
14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로널드 레이건」美合衆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17

**1984년**

1월 1일	新年辭 .....	121
17일	84年度 國政演說 .....	121
19일	亞·美洲地域 公館長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127
2월 6일	「호크」濠洲首相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27
3월 1일	第65周年 「3·1」節 紀念辭 .....	128
13일	인도네시아 「안타라」通信과의 會見 .....	130

3 월 26 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뉴스」紙와의 會見 .....	132
4 월 8 일	「하사날 불키아」브루나이國王 内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34
9 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國王 陛下間의 共同聲明 .....	135
16 일	「마르텐스」벨기에首相 内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36
21 일	「칼리파」카타르國王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37
24 일	印度 「PTI」通信과의 會見 .....	138
5 월 3 일	「요한 바오로」2世教皇聖下 訪韓 歡迎辭 .....	140
3 일	全斗煥 大統領閣下와 教皇聖下間 頂上會談에 관한 共同發表文 .....	141
28 일	「자예와르 데네」스리랑카大統領 内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41
29 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자예와르 데네」 스리랑카 民主社會主義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42
6 월 1 일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을 위한 晚餐時 激勵辭 .....	143
5 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第1次 地域會議 致辭 .....	145
6 일	第29回 顯忠日 追念式 追念辭 .....	148
7 일	한국일보 創刊紀念 特別會見 .....	149
15 일	「소아레스」포르투갈共和國 首相 内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50
7 월 10 일	「디우프」세네갈大統領 内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51
8 월 15 일	第39周年 光復節 慶祝辭 .....	152

8월 20일	夏季 特別記者會見 .....	155
9월 6일	「히로히토」日本天皇 주최 晚餐時 答辭 .....	157
7일	「나카소네」日本首相 주최 午餐時 答辭 .....	158
7일	僑民代表 接見時 激勵辭 .....	159
7일	日本 記者團과의 共同會見 .....	160
7일	日本 各界 指導者를 위한 리셉션時 인사말씀 .....	162
8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日本國 總理大臣閣下간의 共同聲明 .....	163
17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자와라」 감비아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64
23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봉고」가봉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64
10월 3일	第 4316 周年 開天節 慶祝辭 .....	165
3일	프랑스 「뵈리띠끄 앙메르나시오날」誌와의 會見 .....	166
4일	1985 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169
9일	버마 「아웅산」暗殺爆發事件 1 周年에 즈음한 談話文 .....	170
30일	「가옴」몰디브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71
31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가옴」 몰디브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71
11월 2일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會를 위한 午餐時 激勵辭 .....	172
6일	스위스 「뎡팍뜨」誌와의 會見 .....	174

## 1985년

1월 1일	新年辭 .....	179
9일	85年度 國政演說 .....	179
3월 1일	第66周年 「3·1」節 紀念辭 .....	181
18일	亞·美洲地域 公館長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	182
4월 4일	歐洲·阿·中東地域 公館長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	183
15일	「루버스」和蘭王國首相 內외分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84
5월 7일	「지아 울 하크」파키스탄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84
10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모아마드 지아 울 하크」파키스탄回教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85
20일	「몽헤」코스타리카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86
20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退任諮問委員에게 보내는 親書 .....	186
22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루이스 알베르도 몽헤」코스타리카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87
29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諮問委員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	188
6월 5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第3次 全體會議 開會辭 .....	190
5일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海外諮問委員을 위한 리셉션時 激勵말씀 .....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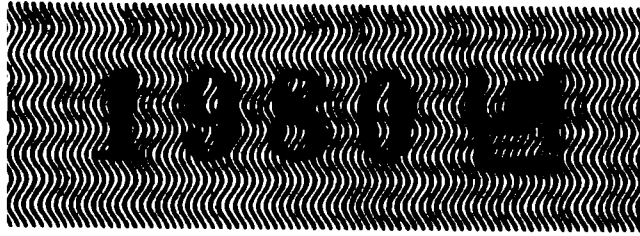
6월 17일	「엘샤드」방글라데시大統領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96
19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후세인 무하마드 엘샤드」방글라데시人民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7
26일	「비에이라」기네비사오共和國 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98
26일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조앙 베르나르도 비에이라」기네비사오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9
8월 15일	第 40 周年 光復節 慶祝辭 .....	199
9월 24일	오스트리아 「보헨 프레쎬」紙의 書面質疑에 대한 答辨 .....	204
10월 1일	第 37 周年 國軍의 날 談話 .....	207
3일	第 4317 周年 開天節 慶祝辭 .....	208
8일	'85 IBRD·IMF 總會 開會式 歡迎辭 .....	210
12일	1986 年度 豫算案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210
16일	「슈뤼터」덴마크首相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212
30일	文化藝術人을 위한 午餐時 激勵말씀.....	213
12월 12일	國防大學院 卒業式 諭示 .....	213

## 1986년

1월 16일	'86 年度 國政演說 .....	217
27일	美國 「뉴스위크」誌와의 會見 .....	219









## 第11代 大統領 就任辭

---

1980년 9월 1일

〈前 略〉

국민 여러분!

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祖國의 平和統一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政府는 이 民族的 至上課題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南北對話를 끈기있게 추진할 것이며, 쉬운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南北韓問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韓半島에서 戰爭은 防止되어야 하고 民族과 國土의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 達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所信입니다.

〈後 略〉

## 第4312周年 開天節 慶祝辭

---

1980년 10월 3일

〈前 略〉

武力南侵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의 위협을 봉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統一祖國을 성취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至上課題이자 歷史的 使命입니다.

우리는 北韓共產集團이 지난 날 저지른 민족적 罪過에도 불구하고 우선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와 統一의 길을 모색하고자 즐기찬 노력을 기울

여 왔으나 저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이에 호응해 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對南中傷 謀略을 격화시킨 데 이어 休戰線에서의 비방방송을 재개하고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 등 挑發策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0·26 사태」後 한때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었던 우리 사회의 교란을 피하고자 간교하게도 南北對話再開에 호응하는 척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國民的 團結속에 새 歷史를 펼쳐 나가기 시작하자 南北總理會談을 위한 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北韓共產集團이 이처럼 대화와 協商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武力赤化企圖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저들이 南北韓間의 交流를 기피하는 것은 民族의 異質化를 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대착오적인 偶像崇拜와 族閥體制를 강요하고 있는 저들 폐쇄사회의 취약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북한측에 대해 하루속히 民族的 良心을 회복하여 지난달 26日 정부가 제의했던 南北總理會談 早速開催에 응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와 統一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굳은 信念과 인내를 가지고 南北對話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南北韓間의 平和定着과 평화적 方法에 의한 統一만이 민족의 念願이며,

또한 모든 世界平和愛護國民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後 略〉

## 1981年度 豫算案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1980년 10월 30일

〈前 略〉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平和定着을 위하여는 南北韓當局者間의 直接對話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南北間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인식하에 北韓共産集團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南北間의 對話再開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後 略〉

## 日本 NHK-TV와의 會見

1980년 11월 14일

〈前 略〉

質問：韓國民族으로서 統一에 대한 염원이 어떻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나 현실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현실적으로 어떻게 統一에로 接近이 될 것인지 大統領閣下께서 깊이 생각하신 것이라든지 腹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들려 주십시오.

答辯：內容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시다시피 北이라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政權이 한번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또 이들은 統一問題라든지 對話問題라든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同族 間의 어떤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고 하나의 政治 宣傳物로 지금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에 대해서는 참 信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역시 全體主義社會와 우리 自由主義社會間의 교섭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0·26」이후 우리 한국에 큰 혼란이 있을 때 저 사람들이 總理會談을 제의해 왔다가 우리가 안정을 회복하니깐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지해 버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정책이고 또 統一을 하나의 선전물로 이용하는 좋은 證據입니다. 과거에 다른 여러 예도 있지만 이것은 선생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南北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南과 北이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부분, 예를 들면 「스포츠」 交流를 한다든지 또 文化交流라든지 藝術關係라든지 教育關係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離散家族들이 있으니깐 이런 離散家族들을 판문점이면 판문점에서 東·西獨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北에서 그것을 同意만 한다면 가족들이 서로 만나 소식을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접근을 해서 풀어나간다면 統一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構想을 하고 있습니다.

<後 略>

**1981E**





## 新年辭

1981년 1월 1일

〈前 略〉

오늘 이 시점에서 3千8百萬 國民이 一致團結을 이룩하는 것은 統一民主國家를 이룩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祖國統一은 民族成員의 고귀한 생명을 다침이 없이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제 5 공화국을 국토와 民族統一의 主體的 基地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後 略〉

## 「統一日報」와의 會見

1981년 1월 1일

〈前 略〉

質問：海外同胞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國內同胞 못지 않게 절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統一方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北韓共產集團이 南北對話를 거부하고 있는 狀況에서, 각하께서는 이 어려운 與件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타개해 나갈 構想이십니까?

答辨：統一은 民族的 問題입니다. 北韓共產集團이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南北間 다방면의 交流는 물론 南北離散家族의 生死·住居地 確認, 通信 등 人道的 問題의 해결마저 外面하고 있는 것은 그들 집단의 反民族性 때문입니다. 이러한 北韓共產集團이 지난 10月 소위 第6次黨大會에서 「高麗聯邦制」운운의 가공의 案을 내놓고 僞

裝宣傳劇을 벌이고 있는 것은 韓國問題를 아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우스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읽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黨大會를 계기로 그들이 시늬만 내왔던 南北對話 등 평화적인 統一方案마저 포기하고 구태의연한 對南暴力赤化 統一路線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저들을 對話의 탁자에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대화에 응하도록 참을성을 갖고 대할 것이며, 統一問題에 관한 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努力을 계속할 것입니다. 國際情勢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우리의 자주역량이 계속 신장될 것인 만큼 北韓共產集團은 언젠가 우리측의 主張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後 略〉

## 이집트 「알 아람」紙와의 會見

1981년 1월 3일

〈前 略〉

質問：統一을 위한 南北韓間의 대화는 최근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까?

答辨：對話를 통해 平和的으로 南北이 統一해야 한다는 우리의 統一政策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북한적십자사를 통한 離散家族再會, 단계적인 人的·物的交流, 南北韓調節委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부터 처리하자는 提案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런 진지한 노력을 시종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24일에는 南北韓總理會談을 위해 계속되었던 實務者豫備會談마저 북한은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民族的 念願과 良識에 입각하여 지난 9月26日과 10月3日 두차례에 걸쳐 다시 회담의 속개와 대화의 계속을 北韓側에 촉구하였으나 北韓側은 어떠한 肯定的 反應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會談中斷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 非現實的이고 공허한 주장으로 소위 「高麗聯邦」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 政府의 전복과 親共政權수립을 노리고 있는 동시에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려는 데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相互內政 不干涉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民族統一을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門戶를 開放하고 있습니다.

<後 略>

## 81年度 國政演說

1981년 1월 12일

<前 略>

지난 36年間 각기 상이한 思想과 理念과 制度下에 分斷되어 살아온 北韓民族이 다시 뭉쳐 統一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 가느냐의 關鍵은 무엇보다도 民族的 信賴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狀況下에서 統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北韓當局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함

니다.

과거 南北韓間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 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對話를 나눈 바 있지만 相互關係의 實質的 改善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 채 많은 時間과 物資와 精力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 마련을 위한 작년의 實務接觸도 北韓側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南北韓간의 對話는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南北韓이 統一에 이르는 길은 美辭麗句의 一方的 提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書面約束을 내놓는 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民族的 信賴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是非함이 없이 南北韓間的 民族的 信賴를 回復하는 데 決定的 契機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南北對話를 무조건 재개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번갈아 相互訪問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北韓의 「金日成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招請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身邊安全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提供할 것입니다.

本人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北韓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雙方 當局의 最高責任者가 相互間의 신뢰를 쌓아 同族間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南北對話를 再開하여 平和統一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異見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南北間의 여하한 問題도 解決할 수 있다고 本人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실천 가능한 分野의 쉬운 것부터 하나씩 合意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宿願인 祖國의 統一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後 略〉

### 「로스앤젤리스」同胞招請 리셉션時 演說

---

1981년 1월 29일

〈前 略〉

우리가 自主民族國家를 建設하는 것은 우리의 悲願인 統一祖國을 實現하는 지름길입니다. 1945년 우리는 조국의 光復을 맞이했으나 국토 분단의 비극이 거기에 同伴됨으로써 사실 완벽한 光復을 이루지 못한 셈이 되었으며, 따라서 祖國統一을 성취하여 全民族에게 빛을 줄 수 있을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光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後 略〉

### 「뉴욕」同胞招請 리셉션時 演說

---

1981년 1월 31일

〈前 略〉

韓半島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나는 전쟁을 막기 위해

金日成 을 만나자고 提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평양에 갈 용의도 있으며, 金日成이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이라도 訪問할 수 있도록 제의했었습니다. 해방이후 「6·25」를 겪은 36년동안에 우리 同胞가 1백 30만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日帝下 36년동안 異民族治下에 희생당한 사람의 수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民族끼리 믿지 못하니까 쌀을 갖다 밥을 해먹자 해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不信속에서 相互 民族的 信賴를 회복하기 위해 總責任者끼리 얘기하여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1.12 提議」에 대해 北韓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金日成이 直接 反應을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正式答辯으로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로널드 레이건」美合衆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81년 2월 2일

<前 略>

6. 「레이건」大統領은 全大統領에게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平和統一 基盤造成을 위하여 北韓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는 韓國政府의 노력에 대한 美國의 支持를 保障하였다. 「레이건」大統領은 全大統領의 획기적인 1981년 1월 12일자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제의에 대하여 찬의를 표명하였다.

「레이전」大統領은 美國이 여하한 對北韓協商에 있어서도 大韓民國이 반드시 완전히 참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北韓의 주요 동맹국들이 한국에 대하여 相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北韓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後 略〉

## 「내셔널 프레스 클럽」演說

1981년 2월 3일

〈前 略〉

南北韓間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造成하는 일이 平和를 위해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本人은 금년 1월 12일 북한의 「金日成주석」이 서울에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오늘 本人은 다시 한번 이 招請을 再確認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雙方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은 韓半島의 平和유지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 質疑 應答 》

質問：大統領閣下, 閣下는 만약 北韓이 閣下의 平壤訪問을 초청하면 수락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答辯：本人은 지난 1월 12日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재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北韓「金日成주석」이 나를 초청하면 平壤을 방문할 것입니다.

〈後 略〉

## 「하와이」同胞招請 리셉션時 인사말씀

---

1981년 2월 5일

〈前 略〉

우리 앞에는 祖國統一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가공할 전략무기가 개발돼 있는 오늘날에 있어 우리가 취할 길은 단 한가지,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本人이 지난 1월 12일 南北韓의 最高責任者가 아무런 조건없이 相互訪問하자고 제의한 것은 바로 이같은 民族的 念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國憲에 의해 平和統一推進의 성실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받은 大統領으로서, 民族的 宿願을 해결하는 데 專心全力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외의 온 겨레가 平和統一勢力으로 굳게 집결되면 統一大業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後 略〉

## 民主正義黨 大統領候補 選舉演說

---

1981년 2월 10일

〈前 略〉

本人은 訪美期間중 「레이건」大統領과 「발트하임」유엔事務總長에게 本人의 「1.12提議」를 설명하였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金日成이 北韓訪問을 초청한다면 내가 平壤을 먼저 訪問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衷情은 南北間의



긴장완화나 그 밖의 모든 문제도 서로간의 信賴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後 略〉

## 第62周年「3·1」節 紀念辭

---

1981년 3월 1일

〈前 略〉

北韓共產集團은 통일을 향한 5천만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꾸준한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時代錯誤的인 世襲體制를 구축하면서 韓半島를 무력으로 적화하겠다는 망상으로 온갖 挑發策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同族間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분단된 祖國을 統一하고자 하는 우리의 努力을 拋棄할 수는 없으며, 좌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번영된 民主統一國家의 건설은 민족사의 召命이며, 우리세대에 負荷된 至上課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忍耐力과 使命感을 일깨우며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後 略〉

## 第12代 大統領 就任辭

---

1981년 3월 3일

〈前 略〉

지난 36年間에 있었던 混亂과 戰爭과 갈등이 대단히 어렵고 괴로운 시

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모두는 스스로 겪은 體驗과 歷史的 敎訓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苦痛으로부터 解放될 것을 줄기차게 갈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戰爭의 威脅으로부터의 解放이요

둘째, 貧困으로부터의 解放이며

세째는 政治的 彈壓과 權力濫用으로부터의 解放입니다.

本人은 주어진 任期동안에 국민 모두가 오랫동안 渴求하고 희망하고 요청해온 이 세 가지의 解放을 爭取하기 위하여 本人이 가지고 있는 모든 能力과 衷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째, 戰爭으로부터의 解放은 戰爭 그 자체를 防止해야 하는 것과 함께 戰爭의 恐怖로부터 解放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말할 나위도 없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民族全體의 삶의 조건을 正常化하며 궁극적으로는 平和統一로 가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中 略〉

본인의 「1·12提議」도 統一에 接近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北韓住民의 인간성과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北韓의 開放을 촉구하고자 하는 데도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結論적으로 戰爭의 두려움에서 解放이 되어야만 民族全體의 생활의 질도 개선·향상될 수 있다고 볼 때 南北相互間의 信賴造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본인은 이 자리에서 「1·12提議」수락을 다시 한번 北韓當局에 대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北韓側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나는 그것을 正式 拒否로는 보지 않으며, 어느 땐가는 우리의 提議를 受諾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

〈後 略〉

## 第12代 大統領 當選祝賀

### 民主正義黨 慶尙北道支部 主催 晚餐時 即席演說

---

1981년 3월 14일

〈前 略〉

金日成과 만나면 그를 설득시킬 자신과 충분한 자료들을 갖고 있다.

〈中 略〉

任期동안에 南北最高責任者間의 對話를 꼭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中 略〉

在任期間中 南北最高責任者間 對話提議를 꼭 실천에 옮기겠으며 金日成이 원한다면 戰爭防止를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해도 좋다.

〈中 略〉

國民이 단결해 뒷받침해 줄 때 金日成도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後 略〉

## 美國 「타임」誌와의 會見

---

1981년 4월 14일

〈前 略〉

▲ 統一論議를 위해 北韓의 金日成을 초청한 데 대하여 :

答辯 : 本人의 提案은 對話를 위한 무조건의 提議다. 어떤 希望的인 징후가 있어서 이같은 提議를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北韓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렇지만 우리와 盟邦들은 상당한 댓가를 치르면서도 韓半島의 평화

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金日成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6·25」를 경험했으며 그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하고 있다. 만약 그가 死亡한다면 그의 아들이 政權을 承繼할 것인데 그런 경우 우리는 恐怖가 무엇인지 모르며, 戰爭의 두려움도 모르는 인물을 대하게 된다.

구체적 증거가 보여주듯이 北韓의 挑發行爲는 불신과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켜 왔으므로 北韓에 대한 우리 國民들의 불신을 타할 수만은 없다. 마찬가지로 北韓 역시 우리를 好意的인 눈으로는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金日成 以外の 어떠한 인물과도 만나는 일은 무익한 것이다. 따라서 本人이 그와 만나서 對話를 시작해야만 한다. 우선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논하여 相互信賴의 분위기를 점차적으로 增大시키도록 하자.

우리는 對話를 위한 노력을 통해 忍耐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평화를 더욱 확실하고 안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야 할 것이며, 北韓의 金日成이 더 이상 本人의 提議를 거부할 수 없도록 세계의 여론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 韓半島의 獨逸式 統一方案의 展望에 대하여 :

答辯 : 北韓과 東獨間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른 共產主義國家에서도 個人崇拜는 있을 수 있겠으나 北韓의 金日成은 거의 神格化되고 있다. 東獨과 여타의 共產國家에서는 지도자들은 바뀌었지만 北韓은 第2次世界大戰 이후 한번도 바뀐 일이 없다.

이러한 특수성은 지구상에서 唯一無二한 것이다. 만약 귀하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면 北韓의 상황이 얼마나 특수한 것인가는 자명해질 것이다. 『蘇聯의 「브레즈네프」나 毛澤東이 자신의 아들을 後繼者로 지명해 놓고 과연 무사할 수 있겠는가?』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開會辭

1981년 6월 5일

친애하는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6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意志와 念願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憲法에 의하여 平和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遂行을 명령받은 본인은 오늘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의 발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機構가 平和統一努力的 求心點이 될 것을 8千餘 委員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가 온 겨레의 余望과 기대속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지금은 우리 조국이 南北으로 갈린지 만 36年이 되는 해입니다.

「8·15」光復으로 植民統治의 고통은 끝났으나, 우리는 끝이어서 生離別과 相殘의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民族은 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장구한 세월, 統一獨立國家로

서의 민족사를 연면히 이어왔습니다.

특히 北方大陸과 南方海洋으로부터의 끊임없는 外侵의 고난속에서도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의 共同體意識과 同質性을 소중하게 보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傳統은 20세기에 접어들어 두 차례의 비극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韓半島에 統一國家를 건설하고 이를 지켜 왔으나, 今世紀 前半에는 국가를 상실했었고, 後半에는 統一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國權喪失과 國土分斷의 兩大 悲劇가운데서 아직도 後者의 悲劇, 즉 分斷의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分斷의 苦痛期間은 올해로서 國權喪失 36년의 고통기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分斷의 고통은 민족전체에 대한 拷問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같은 고통과 신음에서 온 겨레를 하루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南北을 막론하고 오늘을 사는 世代의 民族史的 至上課題입니다.

조국강토의 절반을 땀흘려 가꾸어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우리는 北쪽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토를 南北으로 달리는 경부고속도로가 平壤·新義州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은 애타는 우리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같은 우리의 소망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고속도로는 커녕 기왕에 있었던 철길마저 끊겨 그 殘骸 위에 잡초만이 우거져 있습니다.

더우기 모처럼만에 뚫렸던 對話의 길마저 단절되어 統一을 염원하는 겨레에게 斷腸의 悲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南北은 이대로 남남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이던 우리는 둘로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핏줄과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歷史는 결코 영원한 分斷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同胞여러분!

分斷은 우리 겨레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第2次世界大戰의 戰後處理過程에서 파생된 民族外部의 의사에 의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分斷의 책임이 民族外部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分斷으로 고통받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統一로 영광과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統一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인 것입니다.

統一의 主體는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民族全體입니다. 그리고 統一의 이념은 남의 사상이 아닌 바로 우리 혈관속의 民族魂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同胞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統一方法을 가지고 긴 세월을 허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民族統一의 주체는 바로 民族全體라는 명제가 명백한 이상 統一의 길은 自明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統一은 民族全體의 자유의사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武力에 의한 결정은 流血戰爭을 뜻하는 것으로서 民族이 원하는 길도, 民族을 위하는 길도 아닌 民族自滅의 길입니다.

그러나 韓半島 北쪽에는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의 꿈을 버리지 않는 집단이 엄존해 있습니다.

겨레가 念願하는 統一이 결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武力赤化統一의 꿈이 포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꿈은 文明인의 理性에 반하는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도 가망이 없는 헛된 생각입니다.

戰爭은 파괴와 폐허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 6·25 」 民族相殘에서 몸서리나는 전쟁의 비극을 이미 겪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같은 戰爭을 겪게 되면 休戰後 30年間 파괴와 폐허를 딛고 일어난 창조와 건설과 발전은 南北韓 어디를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同族間의 戰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방지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戰爭防止를 위하여 戰爭挑發의 원인이 되는 편견과 독선, 그리고 불신과 오관은 제거되어야 하겠습니까.

본인은 武力赤化統一論者들에게 바로 이같은 민족적 요구를 똑바로 인식하여 戰爭의 妄想에서 깨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偏見과 獨善과 不信과 誤判의 제거는 상대방의 眞意와 實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本人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에서 지난 1月 12日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의야말로 祖國統一의 길을 여는 돌파구라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提議가 있는 후 국내외에서 폭넓게 표명되고 있는 지지와 성원은 본인의 그와 같은 信念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當局이 아직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北韓 「金日成주석」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月 12日 提議의 受諾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北쪽에서 먼저 서울에 와도 좋고 본인이 먼저 平壤에 가도 좋으며, 그 先後의 선택은 北韓當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提議의 취지를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本人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새로운 提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약 北韓側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本人의 招請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本人을 北韓으로 招請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 대신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든지 직접 만나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관문점이나 第3國을 포함하여 만나는 장소의 선택은 北韓當局에 일임합니다.

만일 이같은 最高責任者 會談이 실현된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본인이 提議한 相互訪問問題와 그 동안 南北韓當局이 提議했던 統一方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만나는 시기도 北韓當局에 일임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北韓當局과의 對話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北韓當局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韓國을 대표하는 인사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권위있는 國際機構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內外 6千萬 同胞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統一의 主體는 民族全體, 즉 우리들입니다.

統一은 民族全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特定政黨·特定體制·特定思想만의 專有物일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最高責任者會談은 민족전체의 統一意志를 연결하는 契機이자 通路가 될 것입니다.

온 겨레가 강렬한 統一意志를 정립하고 이 의지가 會談場을 통해 진정한

로 반영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스러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千萬 同胞 여러분들이 統一推進의 주역이며, 統一祖國의 주인이라는 歴史的 使命感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統一을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統一祖國의 體制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問題는 전적으로 民族成員 全體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충실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南北의 현상과 체제를 관찰·검토하고 분석·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 겨레에게 주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옛말에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事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祖國統一은 우리 겨레의 榮辱과 盛衰가 걸린 엄청나게 중대한 問題입니다.

이러한 重大事를 결정함에 있어 南北韓의 實相을 단 한 번이라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단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목적하면 할수록 더욱 현명한 決定을 내릴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本人은 統一問題의 決定權者인 겨레의 시야 앞에 南北韓當局이 서로 그 사회를 겸허하게 開放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만일 北韓側이 사회의 完全開放을 당장에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선 體育・文化・學問・郵便・經濟交流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完全交流・完全開放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統一에 대한 겨레의 眼目を 넓혀 주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南北韓社會의 相互開放은 단절됐던 同族間의 相互信賴와 同胞愛를 복돋움으로써 겨레를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고 融和의 광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同胞여러분!

우리 民族史에 國權喪失과 國土分斷의 기나긴 밤을 안겨준 20세기도 이제 20년이 채 남지 않았읍니다.

우리의 民族的 一大悲劇이 이 세기를 넘어 또 한 세기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6千萬 겨레의 民族魂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의 비극을 20세기가 가기전에 말끔히 청산하고 民族雄飛의 새날을 설계하게 될 때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위대한 승리로 民族史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韓民族 全體의 위대한 승리로서 世界史에 기록될 것입니다.

勝利의 그날을 앞당겨 성취하는 데 있어서 諮問委員 여러분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牽引役割을 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印尼 國營TV와의 會見

---

1981년 6월 24일

<前 略>

質問： 현재 閣下께서 당면하고 계시는 特別한 問題들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문제들을 解決하기 위한 計劃은 무엇입니까?

答辯： 나는 무엇보다도 韓半島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緊要성을 감안, 지난 1月 12日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제의하여 「金日成 주석」을 서울로 招請했으며, 또 지난 5日에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만나 서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提議하였습니다.

나는 戰爭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과, 平和的 祖國統一을 달성하는 것이 이 民族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 本人의 任期중에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 및 會談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後 略>

## 「자카르타」 記者會見

---

1981년 6월 26일

<前 略>

質問： 며칠전 北韓의 副總理가 「수하르트」大統領을 訪問하고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거론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소위 「高麗聯邦制」를 얘기하면서 先行條件으로 駐韓美軍撤收를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辯： 그 문제는 南北韓關係의 질문으로 생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수하르트」大統領과도 충분히 의견을 交換했습니다. 韓國의 입장과 「1·12」, 「6·5」提議에 대해 「수하르트」大統領은 충분한 理解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만족스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내가 金日成을 서울로 招請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平壤을 訪問하겠다고 提議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韓半島에서는 北韓側이 그들의 國力과 현실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軍備擴張을 위해 投資하고 있고 31年前에 「6·25」戰爭을 일으켰던 北韓은 오늘도 武力으로 赤化統一하겠다고 전락과 정책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北韓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閉鎖돼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相互訪問을 제의한 배경은 현재 金日成이 韓國國力을 과소평가하고 世界情勢를 誤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金日成의 誤判으로 韓半島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는 물론 世界全地域에 擴散될 것이라는 것이 80年代 초반정세로 보아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金이 誤判을 하지 않도록 직접 韓國에 와서 國力의 발전상황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도 平壤에 가 北韓同胞들을 가급적 많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30餘年間 南北으로 갈라져 서로 만나지 못해 不信이 커졌는데 統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民族間의 信賴回復입니다. 그래서 相互訪問을 제의했고 門戶開放을 통해 南쪽에서는 北쪽, 北쪽에서는 南쪽으로 가 相互實態를 精確하게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統一後의 體制와 方法은 金日成과 내가 단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

며 國民들이 정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南北訪問提議를 했습니다.

北韓이 주장하는 소위 「聯邦制」는 이번에 처음 제시된 게 아니고 이미 20年前에 提議돼 반복해 오는 용어입니다.

越盟의 胡志明이 越南을 赤化하려 할 때 聯合政府를 수립하자고 했는데 北韓의 提議는 이 「聯合」을 「聯邦」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聯邦國家는 民族間에 문화가 다르든지 異民族間에 형성됐을 때나 지방자치제가 고도로 발전돼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3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理念的 政治體制가 같아야 하고 둘째, 經濟·社會體制가 동일해야 하며 셋째, 相互 平和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聯邦政府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金日成이 주장하는 「聯邦制」는 이 3가지 조건에서 얘기하자면 相互 完全 乖離된 政治體制, 經濟體制 등 모든 면에서 「聯邦」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北韓이 내건 前提條件이란 現政府가 다 물러나고 南韓에 共產主義가 형성된 다음에 「聯邦」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對話를 통한 統一意思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늘 기만적이고 선동적입니다. 「聯邦制」애기가 나올 때마다 꼭 駐韓美軍撤收를 요구합니다. 지난 50年 「6·25」때만 해도 戰爭準備물 다 해놓고 美軍이 나간 다음에 北韓이 南侵해

왔습니다. 그들의 「聯邦制」는 기만에 불과하며 이론과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金日成이 내 提議를 받아들여 만난다면 「高麗聯邦制」에 대해서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미 「6·5提議」를 통해 선언한 바 있습니다.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同族間에 전쟁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隔意없이 만나야 하겠습니다. 한번 두번 만나면 理解도 되고 信賴도 回復될 것입니다. 北韓이 나의 提議에 대해 肯定的 反應을 안보이고 있지만 나는 성의있게 기다릴 생각입니다.

<後 略>

## 싱가폴 「星洲日報」와의 會見

1981년 6월 27일

<前 略>

▲ 南北韓의 對話展望 및 韓半島의 긴장문제에 대하여 :

答辯 : 韓半島의 긴장과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韓半島 全體를 武力으로 赤化시키려는 北韓이 그들의 妄想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꾸준한 對話提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南北韓不可侵協定」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武裝間諜을 계속 남파하고 있는 동시에 韓國內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위해 중상과 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韓半島에서 현재 취약하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3千8百萬 한국국민들이 굳게 뭉쳐 나라의 安保를 튼튼히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北韓共產集團이 그 어떤 도발을 해오더라도 이를 능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對峙狀態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韓民族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도 소망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雙方間에 緊張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여 國土와 民族을 하나로 統一하는 일은 온 民族의 소원이며, 또한 우리 大韓民國政府가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하여 본인은 지난 1月12日 北韓「金日成주석」에게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南北韓相互訪問을 提議하였으며, 또 지난 6月5日에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가 언제 어디서든 직접 만나 南北韓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기탄없이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6月5日提議에서 본인은 만나는 장소와 시기선택을 北韓側에 一任했습니다. 兩當事者間의 會談에서 장소와 시기를 어느 一方에 일임하는 예는 世界歷史上 예가 별로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會談을 성공시켜 南北間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平和統一을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大韓民國의 성의와 집념을 나타낸 것입니다.

· 本人의 이같은 提議에 대하여 北韓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오지 않고 있습니다.

北韓側에 緊張緩和와 平和統一의 의향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그들을 對話의 -track으로 끌어내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입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수하르토」인도네시아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1년 6월 27일

〈前 略〉

8. 全大統領은 韓半島情勢를 살피면서 韓半島의 평화적 統一達成을 위하여 大韓民國政府가 경주해 온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努力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全大統領은 특히 韓半島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1·12提議」와 「6·5提議」대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에 直接會談을 갖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大統領은 全大統領의 설명에 謝意를 표하고 韓半島問題가 南北韓間의 對話를 통하여 平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直接會談을 지지하였다.

〈後 略〉

## 佛「르 휘가로」紙와의 會見

---

1981년 6월 27일

〈前 略〉

- ▲ 統一問題에 대하여 :

答辯： 統一은 우리 온 겨레의 화합과 통합을 뜻합니다. 相互信賴로 평화  
가 정착되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에는 武力  
으로 赤化統一을 기도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러한 망  
상이 바로 統一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第1의 要素입니다.

統一을 하려면 어떻게 統一을 할 것인가를 놓고 두 當事者가 서로  
만나 진지하게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1月 12日 南北  
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을 提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平壤側은 否定的 反應만을 보이고 있습니  
다.

〈後 略〉

## 「아마드」말레이시아 國王主催 晚餐時 答辭

1981년 6월 29일

〈前 略〉

오늘 이 자리를 빌어 本人은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라를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밝  
혀 두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 2회에 걸쳐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의 相互訪問, 南北韓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討議, 南北韓社會의 開放 등  
을 北韓側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全體 韓國民族의 염원을 반영하여 취해진  
것입니다.

北韓當局은 아직 이같은 본인의 제안에 肯定的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으

나 우리 大韓民國政府는 忍耐와 誠實을 다하여 平和努力을 계속할 것입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후세인 온」 말레이시아 首相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1년 7월 1일

〈前 略〉

6. 全大統領은 韓半島情勢를 살피면서 한국의 평화적 統一達成을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경주해 온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全大統領은 특히 韓國問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도는 「1.12提議」와 「6.5提議」대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에 直接會談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首相은 大韓民國 大統領의 설명에 謝意를 표하고 韓國問題가 南北韓間의 對話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레이시아政府의 입장을 再確認하였다.

## 싱가폴 僑民招請 리셉션時 激勵辭

---

1981년 7월 2일

〈前 略〉

최근 北韓은 赤化統一野慾 충족을 위해 國際情勢의 미묘한 변화를 교묘히 이용하여 軍備增強에 광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反韓 國際輿論을 조작하여

國際社會에서 우리나라를 孤立化시키려는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들의 이러한 책동에 개의치 않고 韓半島의 平和統一問題에 대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1月 12日 北韓의 金日成을 招請 하겠다고 정식으로 제의한 바 있었으며, 6月 5日에는 南北韓이 제시하는 모든 問題의 제한없는 討議와 南北韓社會의 開放 및 交流를 提議했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6千萬同胞의 염원에 아랑곳없이 이같은 나의 提議를 受諾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현가능성도 없는 소위 「高麗聯邦制」라는 것을 云云하고 있으나, 만일 그들이 「聯邦制」뿐이 아니라 그 무슨 統一方案에 대해서라도 진심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있다면 우리와 만나서 對話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對話를 계속 거부하면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선전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리관유」싱가폴 首相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1년 7월 2일

〈前 略〉

3. 全大統領과 「리」首相은 특히 東北亞와 東南亞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太平洋地域 情勢를 검토하고, 양국이 위치한 각 지역의 平和와 安全이 연 관되어 있으며 아시아 및 전세계의 平和·安定維持에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全大統領은 東北亞細亞情勢를 설명하면서 大韓民國이 同地域의 平和·

安全維持와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防止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음을 밝혔다.

「리」수상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兩 領導者는 東北 및 東南亞細亞의 平和・安定 및 發展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後 略〉

### 「푸미폰」泰國 國王 主催 晚餐時 答辭

1981년 7월 3일

〈前 略〉

本人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 韓半島에는 아직도 緊張狀態가 지속되고 있으며 6千萬 南北韓國民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平和가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韓國國民은 모두가 戰爭威脅으로부터 해방될 것과 平和統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 南北韓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제한없는 討議, 南北韓社會의 開放과 交流 등 최근에 있었던 본인의 일련의 提議는 그러한 전체 국민들의 갈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後 略〉

## 방콕 「프레스 클럽」演說

1981년 7월 5일

### <前 略>

韓半島의 평화는 東北亞細亞 뿐 아니라 東南亞細亞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戰爭의 可憐스러운 파괴와 非道德性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韓半島에서 戰爭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平和實現을 위하여 본인은 지난 1月 12日 北韓의 「金日成주석」에게 서울을 방문하도록 招請하였습니다. 그리고 6月 5日에는 그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 會談하자고 提案하였습니다.

이 提案에서 본인은 南北韓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北韓側과 討議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南北韓社會의 無制限 開放과 相互交流를 주장했습니다.

韓半島의 恒久的 平和達成은 오로지 南北韓間에 신뢰를 쌓아 올리고 이해를 促進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의 金日成은 지난 1日 平壤에서 열린 한 集會에 보낸 메시지 에서 본인의 平和提案을 외면하면서 또다시 우리와의 對話를 거절하였습니다.

### <中 略>

오늘의 韓半島 狀況에 관련이 깊은 強大國들도 물론 조속한 평화정착을 希求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강렬한 平和希求의 壓力下에서 사실 金日成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韓國과의 對話始作은 北韓內部體制에 대한 위협이며 對話의 거절은 國際的 孤立的 自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北韓과 우호관계에 있는 共產國家들도 내심으로는 韓國과의 對話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金日成도 불가피하게 자신의 軌도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到來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本人은 그러한 상황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忍耐로써 平和를 위한 努力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갈 나무없다』는 말대로 本人은 굳게 닫힌 北韓의 문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두드릴 것입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프렘」 泰國 首相閣下간의 共同聲明

1981년 7월 6일

〈前 略〉

9. 全大統領은 韓半島情勢를 살피면서, 韓國의 平和的 統一達成을 위해 韓國政府가 경주해 온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努力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全大統領은 특히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도는 81年 1月 12日字 및 6月 5日字 提議대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간에 直接會談을 개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全大統領은 韓國政府의 平和定着 努力에 대한 泰國政府의 지속적인 지지를 確約 받았다.

「프렘」首相은 韓國의 統一이 對話를 통해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泰國政府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이러한 直接會談을 지지하였다.

〈後 略〉

### 「마르코스」 필리핀 大統領 主催 晚餐時 答辭

---

1981년 7월 6일

〈前 略〉

韓半島의 統一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과 韓國政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과 南北韓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의 제한없는 討議, 그리고 南北韓社會의 相互開放 등에 관한 본인의 일련의 提議는 평화를 갈망하는 그러한 民族的 念願을 반영한 것입니다.

〈後 略〉

### 「마닐라」記者會見

---

1981년 7월 7일

〈前 略〉

質問: 閣下가 提議하신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北傀가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南北關係發展을 촉구하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答辨 :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韓半島에는 아직도 긴장과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이 오래 계속된다는 것은 韓半島 뿐 아니라, 東北亞와 世界平和에도 위협이 됩니다.

앞으로의 戰爭은 2次大戰樣相과는 달리 가공할 만한 파괴로 全人類의 불행이 예상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戰爭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韓國과 관련된 많은 국가들과 우리 민족의 소망인 것입니다.

36年間이나 分斷되어 온 우리 6千萬 민족은 平和的 方法으로 國토를 統一하는 것을 염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國民輿望에 부응해서 平和統一 努力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12」 및 「6·5」提議는 南北間에 신뢰의 바탕을 조성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여행중에 지난 7月 1日 金日成이 어느 集會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提議를 거절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北韓當局은 나의 提議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日成은 지난 30年間 1人獨裁와 個人崇拜思想을 뿌리내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폐쇄시켜 왔습니다.

金日成이 나의 提議를 받아들이면 北韓을 開放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金正日에게 많은 것을 引繼, 世界共產圖에서 볼 수 없는 世襲制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開放하고 相互訪問하게 되면 北쪽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를 원하게 되고 經濟事情이 나쁜 北韓에선 變을 요구하게 돼 體制維持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提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日成이 나의 提議를 거절했지만 나는 모든 外交經路를 통해 나의 提案이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우리의 속담과 같이 닫혀진 北의 문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인내로 꾸준히 노력하고 국민이 단결해서 뒷받침하면 對話가 실현될 것으로 展望합니다.

言論人 여러분께서 南北問題를 질문하셨으니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言論人 여러분이 韓半島 平和를 위해 본인의 提議를 이해하고 支持・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마르코스」 필리핀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81년 7월 8일

<前 略>

7. 全大統領은 韓半島情勢를 검토하고 한국의 平和的 統一達成을 위해 大韓民國政府가 경주해 온 緊張緩和 및 平和定着努力을 상세히 설명 하였습니다.

全大統領은 특히 한국문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도는 1981年 1月 12日字 및 6月 5日字 提議대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에 直接會談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르코스」大統領은 全大統領의 설명에 謝意를 표하고 한국문제가 對話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自國政府의 입장을 再確認하면서 이러한 直接會談을 지지하였다.

〈後 略〉

## 印度「PTI」通信과의 會見

1981년 7월 25일

〈前 略〉

質問: 閣下께서는 北韓과의 對話를 提案하신 바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떠한 것입니까? 閣下, 韓國이 北韓으로부터 받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은 무엇입니까? 閣下께서는 統一을 원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方法으로 統一이 성취되길 원하십니까?

答辯: 戰爭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平和統一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北韓間에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의 가교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重要하고 必須的인 第1步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信念下에 본인은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 北韓의 「金日成 주석」에게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는 南北韓 兩側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이 토의될 수 있음을 제의했으며 또한 會談의 장소와 시기결정은 北韓의 선택에 일임했습니다.

아울러 南北韓社會의 완전한 개방과 교류도 본인은 提議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北韓은 본인의 이같은 일련의 제의에 否定的 反應을 보여왔습니다. 北韓이 본인의 提案을 거부한 속셈은 추측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北韓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閉鎖된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金日成은 다른 共產國家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個人偶像化體制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南北韓間에 會談이 이루어지고 접촉과 교류가 시작되어 폐쇄되었던 社會가 외부에 노출되고 개방되면 1人獨裁體制는 불안해질 뿐 아니라 큰 威脅을 받을 것으로 判斷, 결국 北韓은 본인의 提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韓半島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길은 南北韓間에 直接對話를 추진하는 것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같은 우리의 基本立場에 대한 國際的 支持의 기반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같은 國際的 壓力과 평화를 갈망하는 民族的 要求에 굴하여 北韓 統治者들도 그들의 현재의 教條的 態度를 修正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그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굳게 닫힌 北韓의 문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韓半島에서 전쟁의 再發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後 略>

## 第36周年 光復節 慶祝辭

1981년 8월 15일

〈前 略〉

國家를 부강하게 하여 國權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한 오늘의 國家的 課題는 조국의 平和統一을 완수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며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祖國統一은 「8·15」의 반토막 光復을 진정한 光復으로 완성하는 겨레의 宿願입니다. 統一은 같은 동포끼리 단란하게 모여 산다는 기쁨과 함께 뭉쳐진 6千萬의 底力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와 民族의 一大興隆을 기약하는 계기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민족을 위한 統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목적도 이 命題보다 上位에 두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民族의 大量殺傷을 전제로 하는 武力統一은 민족을 위한 統一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統一의 正道는 바로 平和統一인 것입니다.

외래의 異端思想을 내세워 대량 民族殺傷도 서슴지 않겠다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武力統一妄想은 바로 反民族的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平和統一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1·12提議」와 「6·5提議」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提議에 대하여 北韓은 번번히 이를 거부함으로써 反平和·反統一·反民族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拒否反應은 36年間 外部와 완전히 斷絶되어 온 그들의 閉鎖社會를 결코 개방하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1·12」 및 「6·5」提議에 대한 民族的 呼應도와 國際的 支持度は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희망하는 世界的 輿論을 北韓은 한없이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전쟁의 재발을 마다하면서 平和統一의 실현을 갈구하는 民族的 念願을 北韓은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本人은 그들의 궁극적인 軌道修正을 기대하면서 北韓을 對話의 たく자로 끌어내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後 略〉

## 1982年度 豫算案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1981년 10월 2일

〈前 略〉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하여는 南北韓間의 直接對話와 交流를 통한 信賴回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본인이 提議한 바 있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直接對話를 위한 「1·12 提議」와 「6·5 提議」를 北韓이 受諾할 것을 인내와 성의로 계속 촉구하는 한편,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國際的 支持基盤을 넓히기 위한 外交活動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後 略〉

## 京鄉新聞 創刊紀念 特別會見

1981년 10월 6일

〈前 略〉

質問： 이미 大統領閣下께서는 平和統一을 위한 實踐意志로 「1·12」 및 「6·5」提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은 이 提議에 대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共感과 呼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위 「高麗聯邦制」나 「大民族會議」나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무력도발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南北 緊張緩和에 관한 새로운 構想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答辯： 우리의 統一方案이나 南北韓接觸의 방향은 平和的이어야 하며 民族繁榮의 기틀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絕對命題입니다.

본인이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에 提議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은 解放以後 쌓여온 南北韓間의 理念과 制度의 相異性を 인정하면서, 전쟁과 緊張狀態에서 비롯된 相互不信을 해소시키고 특히 北韓이 우리를 謾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提案한 것이었습니다.

國際社會에서의 여론도 우리의 南北對話政策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또한 北韓當局이 진정으로 전쟁을 피하고 平和的인 統一을 원한다면 결국 그들도 이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緊張緩和를 위한 具體案이 있으나 나로서는 지금 그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공개하여 宣傳戰만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국 문제는 南北韓 兩側의 最高責任者가 서로 직접 만나 얘기를



시작하는 일이 緊張緩和의 첫 출발점이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後 略〉

## 「까라소」 코스타리카 大統領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1년 10월 13일

〈前 略〉

이 땅에서 戰爭再發을 방지하고 國土와 겨레를 평화적으로 統一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韓國國民의 절실한 民族的 念願입니다. 이는 또한 東北亞細亞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모든 韓國國民의 念願을 성취시키고 東北亞細亞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이 서로 만나 民族的 信賴를 회복시키고 相互交流를 트는 일이 앞서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가 서로 만나서 南北韓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討議할 것과 南北韓社會를 서로 개방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한 바 있습니다.

이 提議에 대한 世界平和愛護國들의 지지는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본인의 提案을 受諾하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도발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韓半島의 긴장을 高潮시키고 있습니다. 北韓은 변함없이 平和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北韓의 平和를 거부하는 태도가 영속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忍耐와 誠實으로써 平和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 결심입니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까라소」 코스타리카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1년 10월 14일

〈 前 略 〉

5. 全大統領은 「까라소」大統領에게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平和定着 및 窮極的 平和統一達成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제안노력을 설명하였다.

全大統領은 특히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 北韓側에 提議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간의 直接會談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까라소」大統領은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평화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코스타리카政府의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全大統領의 상기 兩 提議가 韓半島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評價하면서, 同 提議에 대하여 찬사와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

1981년 10월 15일

〈 前 略 〉

어떤 사람들은 平和統一이라고 하면 환상적이고 매우 추상적인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같은 民族끼리 서로 民族的 悲劇인 國土分斷을 해소하고 統一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환상적인 생각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民族이 고래로 지녀온 끈기와 저력, 그리고 民族精神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의 平和統一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 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中 略〉

第5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憲法機關으로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가 발족을 하였고 統一의 念願을 달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통하여 우리가 統一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統一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것이 아닌 武力赤化統一입니다.

〈中 略〉

지금 北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高麗聯邦制」는 毛澤東이가 國共合作때, 越盟의 胡志明이가 越南과의 聯立政府樹立을 주장했을 때 내세웠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10大綱領 云云하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내용중 몇가지 글자를 고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中 略〉

「1.12提議」나 「6.5提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攻勢를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高麗聯邦制」를 포함하여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나는 시기와 장소도 北쪽에서 정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金日成이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平和統一政策을 추구하고 세계각국이 우리의 統一政策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金日成도 나의 提議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現在 金日成이가 여러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中 略〉

우리는 忍耐力을 가져야 하며 조금 해보다가 안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끈기있게 밀고 나가면 나의 提議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어느 歲月에 統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됩니다. 또 統一問題는 몇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南北韓이 서로의 사회를 開放해서 온 국민이 보고난 후에 決定하도록 해야 합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1981년 11월 4일

〈前 略〉

돌이켜 보면, 民族이 分斷된 이후 36年이란 歲月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分斷이 된 것이 아니고 強大國에 의해 他意的으로 分斷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속히 再統一을 해야 합니다.

再統一이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最善을 다하기 전에 不可能하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統一을 하겠다는 굳건한 意志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方法이 있게 마련입니다.

〈中 略〉

武力에 의한 統一이 아니고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 統一을 하겠다는 우리의 努力이 계속되면 至誠이면 感天이라는 말처럼 반드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우기 全世界의 여러나라는 물론 심지어 北傀에 同調하는 共產主義者들도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支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趨勢로 나간다면 金日成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국은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呼應해 오

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高麗聯邦制」에 대해서는 北韓에 동조하는 勢力에서조차 實現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좋은 結果를 가져오게 됩니다.

〈後 略〉

### 「프렘」泰國 首相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1년 11월 10일

〈前 略〉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아직도 나의 「1·12」 및 「6·5」提議를 외면한 채 걸으로는 平和統一을 외치면서 각종 挑發行爲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相互訪問 및 會談만이 韓半島問題解決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길이며 北韓도, 언젠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策도를 수정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後 略〉



1982年





## 82年度 國政演說

1982년 1월 22일

### < 前 略 >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 雙方中 어느 일방이 자기의 思想・理念・制度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統一만을 고집하는 한 統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統一은 長久한 세월에 걸쳐 한 핏줄, 한 歷史, 같은 文化와 같은 傳統을 이어 온 하나의 民族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統一은 어느 特定階層이나 集團에 의하여 獨占的・排他的으로 主導되어서도 안되고 武力 또는 暴力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統一은 어디까지나 民族自決의 原則에 의거하여 各階全體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 두차례에 걸쳐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과 直接會談을 提議했던 것도 바로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에 의한 統一의 길을 허심탄회하게 찾아보자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提議가 실현되도록 지금까지 기울여 온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본인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실현될 경우, 제시하려고 구상했던 統一方案을 밝힘으로써 北韓當局과 全世界에 대하여 우리의 참뜻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平和統一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南北間에 民族的 和合을 이룩하여 民族全體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아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그 憲法에 따라

統一國家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統一憲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雙方住民의 뜻을 대변하는 南北代表로 假稱「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그 機構에서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統一民主共和國를 실현하기 위한 統一憲法을 起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統一憲法草案이 마련되면 쌍방은 남북한 전역에 걸쳐 民主方式에 의한 자유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확정・ 공포하고 그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待望의 統一國家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統一祖國의 政治理念과 國號,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와 國會構成을 위한 總選舉의 방법과 시기 및 절차 등은 「民族統一協議會議」가 구성되어 쌍방이 統一憲法을 起草하는 과정에서 討議・合意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統一憲法草案은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提示될 것입니다.

北韓側이 진정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바란다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民族統一協議會議」에서 그들이 구상하는 統一憲法草案을 정정당당하게 내어놓고 우리측의 초안과 比較・檢討하는 가운데 하나의 單一案을 만드는 절차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南北雙方間에 이같은 統一憲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民族生活의 모든 영역에서 統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南北 雙方은 그 동안의 民族自害的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속히 民族的 和合을 실현할 수 있는 民族自愛的인 正常關係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南北 雙方이 무엇보다도 相互關係를 정상화하고 이 基礎위에서 民族和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統一을 이룩할 때 까지의 實踐措置로서 다음의 合意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할 것을 提議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統一國家가 수립될 때까지는 互惠平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相互關係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雙方間 紛爭問題解決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武力 및 暴力의 사용 또는 威脅을 완전히 止揚하고 모든 문제를 相互 對話와 協商을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현존하는 相異한 政治秩序와 社會制度를 相互 認定하며 서로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일체 干涉하지 아니한다.

네째, 쌍방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現存 休戰體制를 유지하면서 軍備競爭의 止揚과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措置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分斷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民族的 信賴와 和合의 霧靄氣를 造成하기 위해 相互 交流와 協力을 통하여 社會的 開放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離散家族의 人道的 再會問題를 包含해서 南北間의 自由로운 인적 往來와 다각적인 交流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 交易・交通・郵便・通信・體育・學術・教育・文化・報道・保健・技術  
環境保存 등 諸般分野 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  
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思想・理念・制度의 差異에 구  
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雙務的 및 多者間  
國際條約과 協定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協  
議한다.

일곱째, 쌍방은 閣僚級 全權代表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平壤에 常駐  
連絡代表部를 설치한다. 쌍방은 相互 協議에 의하여 連絡代表部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管轄領域에 주재하는 相對便 連絡代表部의 任務  
遂行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北韓側이 하루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會談에 호응하여  
이 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인은 조속한 시일안에 閣僚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 雙方의 高  
位代表團間의 豫備會談을 개최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會談을 실  
현시키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만약 北韓側이 이같은 豫備會談 開催提議에 동의한다면  
이 豫備會談에 所定の 代表團을 파견할 모든 준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  
다는 사실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後 略>

## 美國「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誌와의 會見

---

1982년 2월 일

〈前 略〉

質問: 閣下께서는 北韓의 現 軍事的 威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南北韓 關係의 實質的 改善의 展望은 어떻습니까?

答辯: 重要的 것은 韓半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緊張을 완화시켜 恒久的 平和를 定着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이 平和의 定着을 위해 지난 1月 12日과 6月 5日 2회에 걸쳐 北韓의 金日成과 직접 만나 南北韓間의 모든 問題를 토의하고자 提案했던 것입니다.

北韓은 나의 提案에 대해 否定的 反應을 보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北韓이 반드시 教條的 態度를 바꾸어 나의 提案에 긍정적으로 응해 올 것으로 믿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第63周年 「3·1」節紀念辭

---

1982년 3월 1일

〈前 略〉

民族統一의 正道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3·1運動」이 提示한 역사적 教훈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統一은 반드시 民族自決의 原則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統一의 主體는 民族으로서 統一을 성취하는 일은 바로 민족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本人이 지난 1月 22日 民族自決의 原則에 의한 民族和合 民主統一을 제창하면서 南北韓當局間의 對話를 再強調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확신에 基礎를 둔 것입니다.

둘째로, 統一은 어디까지나 民族은 하나라는 認識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地域·理念·宗敎·階層의 區別없이 온 겨레가 參與하는 統一이야말로 진정한 民族統一인 것입니다.

民族을 이간시키고 民族成員間의 반목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나 언동은 중지되어야 하며, 南北韓間에 民族異質化를 멈추고 해소하는 성실한 措置들이 하루바삐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統一은 平和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방식의 統一이어야 합니다.

戰爭을 수단으로 한 統一은 祖國을 폐허로 만들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安定과 平和, 그리고 나아가 世界平和를 크게 威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全人類, 특히 겨레의 행복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民族自決의 原則下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統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스러운 우리의 노력 앞에는 좌절이나 체념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統一은 나라와 겨레의 장래와 直結된 課題로서 이를 다음 世代의 짐으로 넘겨 버리는 惡循環도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統一은 기필코 우리 世代의 손으로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자신감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입니다.

투철한 신념과 강력한 實踐意志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自體의 統一力量을 기르는 데도 배전의 熱誠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1982년 3월 25일

〈前 略〉

지난 1월 22日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한 바 있고 81年에도 平和統一을 위한 對北提議를 한 바 있습니다.

80年代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볼 때 조국의 平和統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召命이자 民族의 至上課題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統一을 이룩하지 못하고 2世들에게 넘겨진다면 同族間의 異質化는 더욱 深化되어 統一을 이룩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統一은 우리의 世代에서 기필코 이룩해야 합니다.

<中 略>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해서는 現在 94 個國이 넘는 나라에서 積極的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는 北韓을 지지해 온 第3世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統一을 이룩하는데 絶對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北韓의 經濟는 統制經濟이기 때문에 力이 없고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內部事情도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平和統一을 이룩할 수 있도록 全國民이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80年代에 統一을 이룩해야 합니다.

<中 略>

80年代 우리의 目標는 다음 4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國民이 總團結해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1982年度 諮問委員研修會 致辭

1982년 4월 19일

〈前 略〉

우리는北韓側의 자세가 硬直된 것이면 그럴수록, 또한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난관이 험난하면 할수록 평화를 확보하고 統一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統一實現方案을 모색해 가면서 전진의 발걸음을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우기 80年代는 전반적인 國際情勢가 격동과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統一로 접근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本人이 지난해 1月 12日과 6月 5日의 提議에 이어 지난 1月 22日 國政演說을 통해 提案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平和와 統一을 향한 6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고 있으며, 歷史開拓을 위한 우리의 能動的 意志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統一方案은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案에 의해 民族·民主·自由·福祉의 理想을 추구하는 하나의 완성된 統一民主共和國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提案은 國力面에서 對北優位에 대한 國民的 自信感과 開放體制의 優越性을 과시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平和意志와 적극적인 統一努力을 內外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北韓側은 계속 冒險主義와 對決主義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의 對話再開提議를 거부하면서 虛構的인 「高麗聯邦制」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北韓側의 주장은 하나의 單一國家인 統一祖國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2個의 地域政府를 존속시키는 미완성의 統一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側의 속셈은 그나마 「聯邦制」統一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聯邦制」를 標榜하면서 우리의 安保態勢弱화를 획책하여 궁극적으로는 韓半島를 武力으로 赤化統一하고자 하는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사무엘 칸연 도우」 라이베리아 共和國 國家元首 ·  
民族救濟委員會 議長 · 總司令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2년 5월 13일

〈前 略〉

9. 全斗煥大統領은 韓半島情勢를 검토하면서, 大韓民國政府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한국의 平和的 統一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하여 온 韓半島 緊張緩和와 平和定着 努力, 특히 최근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설명하였다.
10. 「사무엘 칸연 도우」 라이베리아 國家元首는 大韓民國의 이러한 노력과 主導的 役割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라이베리아政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韓國統一에 관하여 韓國政府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라이베리아 國家元首는 韓國의 統一이 直接 當事者인 南北韓兩側간의 理解, 相互信賴 및 對話의 증진을 통한 平和的 手段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희망을 표명하였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發足 2周年 晚餐時 격려말씀

1982년 6월 4일

〈前 略〉

國土分斷은 戰爭의 위협, 離散家族의 고통, 國力의 과다지출 등 民族的 불행의 源泉으로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祖國의 平和統一은 반드시 우리 世代에 이루어야 할 우리의 時代的 召命이다.

統一은 同族間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의 總意에 따라, 民主的·自主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이러한 民族的 念願에 따라 本人은 지난 1月 22日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北韓에 提議한 바 있다.

이 方案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戰爭再發을 방지하고 평화를 定着시켜 同族間의 和合雰圍氣를 조성함으로써 統一을 성큼 앞당기는데 있으며 이 方案은 이미 北韓과 가까운 非同盟國家들을 포함한 大多數 國家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같은 國際社會의 絶對的 支持와 信賴는 이 方案의 正當性을 立證해 주고 있으며 우리의 統一努力에 큰 힘이 되고 있다.

統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統一에 대한 自信感을 갖고 一致團結하여 그 力量을 결집시켜 나가야 가능한 것이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에게 보내는 親書

1982년 6월 5일

〈前 略〉

1981年 본인의 國政演說 및 諮問會議 開會辭를 통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과 會談을 提議한 데 이어 금년 1月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함으로써 우리는 統一實現을 위한 새로운 地平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提議에 대해 여전히 귀를 막은 채 赤化統一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分斷의 고통을 덜기 위한 많은 提案들중 그 어느 하나에도 肯定的 反應을 보이지 않으면서 民族分裂적이고 對決主義적인 자세를 계속 強化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民族分裂과 我執, 그리고 憎惡의 論理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欺滿할 수는 없으며, 民族과 人類의 歷史는 和合과 平和라는 普遍的 價値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北韓共產集團도 이러한 歷史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民族和合과 平和統一을 향한 與件이 날로 成熟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날이 그들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날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歷史는 傍觀者의 편이 아니라 意志를 갖고 努力하는 者의 편입니다.

祖國統一의 歴史的 課業을 他人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아득한 내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統一의 主役, 民族史의 主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37年間이나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國土分斷이라는 非正常的 狀態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첫째로, 分斷의 現實에 대한 망각이고 둘째로, 고통받는 北韓 同胞들에 대한 망각이며, 셋째로는 統一의 使命에 대한 망각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빠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망각현상을 경계하면서 統一에 대한 의지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統一은 우리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20世紀에서 21世紀으로 넘겨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統一이 長期間 늦춰지면 民族의 異質化는 더욱 깊어져 統一實現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고 설사 統一이 된다 해도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의 필요성과 時急性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思考와 행동과 목표를 祖國統一에 一致시켜 나가야 하겠습니까.

〈後 略〉

## 「모부투 세세 세코 쿠쿠 옹벤두 와 자 방가」大統領閣下の 公式訪韓에 대한 大韓民國·자이르 共同聲明

---

1982년 6월 10일

〈前 略〉

4. 全斗煥大統領은 자이르大統領에게 韓半島問題와 관련,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조국의 平和統一을 위하여 경주하여 온 세반 노력, 특히 자신이 提案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설명하였다.

「모부투」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大韓民國의 努力과 主導的 役割, 특히 全斗煥大統領閣下の 平和統一政策을 높이 평가하였다.

5. 兩國 大統領은 韓國問題는 南北韓間의 對話를 통한 民族的 和解와 合意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공동의 입장에 입각하여 이 目標 達成을 위하여 非同盟 頂上會議를 비롯한 各種 國際會議에서 相互 緊密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을 위한 晚餐時 致辭

---

1982년 7월 23일

〈前 略〉

統一은 分斷된 民族의 再結合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시일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12日和 6月 5日의 본인의 提議, 그리고 지난 1月 22日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바로 이러한 國民的 興望과 要請에 부응하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方案인 것입니다.

南北韓相互間의 信賴를 회복하고 戰爭再發을 방지하여, 평화와 화합의 雰圍氣를 定着시키며, 나아가 統一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자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꾸준한 平和統一努力은 國際社會에서 갈수록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해서도 일부 親北韓 非同盟國家들을 포함한 大多數 國家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합하여 國家發展을 持續해 나간다면 南北韓間의 國力の 격차가 더욱 벌어져 北韓共產集團도 결국은 武力赤化統一의 헛된 꿈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大勢와 名分이 우리 쪽에 있으므로 北韓側도 언젠가는 우리의 對話再開努力과 平和統一方案에 호응해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작금의 國際情勢變化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련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밝은 앞날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統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빨리 성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對備하여 우리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統一을 위한 環境造成에 積極的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後 略〉

## 第37周年 光復節 慶祝辭

1982년 8월 15일

### 〈前 略〉

본인은 이러한 民族自主의 정신이 우리의 統一問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基本原則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同族相殘의 悲劇을 되풀이하거나 無益한 對決을 더 이상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대한 중대한 危害行爲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民族自決의 鞏固한 原則위에서 民族最大의 宿願인 統一問題도 우리 손으로 성취하는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南北雙方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겨레의 將來問題를 허심탄회하게 論議할 것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對話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平和的으로 풀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이 서로 문을 닫고 접촉을 꺼려한다면 民族和合과 統一은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겨레의 지향에 따라 접촉과 對話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하루 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실현시켜 對話와 접촉의 門이 과감하게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측의 提議에 北韓側이 肯定的으로 호응하기를 다시 한 번 促求하는 바입니다.



또한 本人은 南北雙方이 統一을 위한 對話를 진지하게 進行하는 歷史的 課業을 順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非正常的인 南北關係에 終止符를 찍고 社會開放을 통해 民族和合을 圖謀하는 實踐的 努力도 함께 기울여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人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北韓을 포함한 모든 共產圈에 居住하는 우리 同胞들에게 우리 社會부터 먼저 개방할 것을 宣稱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兄弟同胞들은 누구나 自由롭고 安全하게 大韓民國을 來往할 수 있으며, 大韓民國政府는 그에 대한 確실한 保障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本人은 비록 사상과 제도 그리고 居住地域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이라면 누구나 조국강토를 자유로이 來往할 수 있게 될 때 同胞愛를 되살려 民族和合을 성큼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窮極的으로는 民族統一을 이룩하는 原動力으로 발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모이」 케냐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1982년 8월 19일

<前 略>

7. 全大統領은 韓半島情勢를 檢討하는 가운데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달성하려는 大韓民國政府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全大統領은 窮極的인 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現實的 方法은 南

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의 直接 會談을 개최하는 데 있음을 특히 強調하였다.

「모이」大統領은 大韓民國政府의 노력과 主導的 役割을 높이 評價하고 케냐政府는 大韓民國政府가 주창하고 있는 對話政策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全大統領에게 약속하였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샤가리」나이지리아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982년 8월 22일

〈前 略〉

9. 全大統領은 韓半島 問題에 대해 언급하면서 韓半島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국의 平和的 統一을 실현하려는 大韓民國政府의 努力, 특히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10. 「샤가리」大統領은 韓半島에서의 平和를 定着하기 위한 大韓民國政府의 主導的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全大統領이 주창한 바 있는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表明하였다.

〈後 略〉

### 全斗煥 大統領閣下와 「봉고」가봉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982년 8월 24일

〈前 略〉

7. 全大統領은 韓半島 情勢와 관련,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목표로 하여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하여 韓國政府가 기울인 재반 노력을 가봉大統領에게 설명하였다.

특히 全大統領은 韓國問題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方法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間 直接 對話를 실현하는 것임을 強調하였다.

全大統領은 또한 韓國의 平和統一時까지 暫定措置로서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이 緊張緩和에 기여하고, 民族和合을 촉진하는 國際的 雰圍氣造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表明하였다.

8. 對話主唱者인 가봉共和國 大統領은 全大統領에게 가봉政府는 平和的 方法으로 韓半島 統一을 실현시키기 위한 모든 主導的 努力을 계속 성원하고 지지할 것이며, 國際聯合, 非同盟運動 및 여타 國際會議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디우푸」세네갈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82년 8월 26일

<前 略>

세네갈大統領은 關係當事者間的 진정하고 영속적인 화합에 基礎하여 韓國의 統一에 의한 韓國問題의 平和적이고 恒久的인 해결을 지지하는 세네갈의 입장을 再確認하였다.

세네갈大統領은 全斗煥 大統領閣下が 大統領으로 취임한 이래 이러한 平

和統一을 이루기 위하여 전개한 제반 平和的 努力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 1983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1982년 9월 4일

### 〈前 略〉

政府는 周邊의 情勢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南北關係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對北政策을 전개함으로써 北韓側이 對話의 마당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促求할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및 會談을 北韓側에 提議하였고 금년에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하는 등 南北對話再開와 平和統一促進을 위한 우리의 實踐意志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政府는 南北韓社會의 完全開放과 多角的인 南北交流, 그리고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個 示範實踐事業」을 提議하였고 北韓側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統一方案은 國際社會에서도 넓은 공감과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政府는 새해에도 共產圈 同胞에 대한 門戶開放과 함께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 및 會談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수하르토」인도네시아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2년 10월 19일

〈前 略〉

11. 全大統領은 韓半島를 둘러싼 情勢를 概觀하는 가운데 그가 최근 提議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포함, 韓半島內的 緊張緩和와 恒久的인 平和定着을 위한 大韓民國의 노력과 의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수하르토」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 達成을 위한 大韓民國의 노력을 높이 評價하면서 韓半島 問題가 對話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도네시아 政府의 立場을 再強調함과 동시에 南北韓間的 直接會談을 支持하였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케난 에브렌」터키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2년 12월 23일

〈前 略〉

10. 兩國 大統領은 최근의 南北亞情勢를 檢討하였다.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는 「케난 에브렌」터키共和國 大統領閣下에게 最近의 東北亞情勢, 특히 韓半島問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韓國問題가 상금 미해결의 상태에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韓國問題는 南北韓 最高責任者間的 對話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後 略〉

## 駐韓美軍將兵에게 보내는 聖誕節메시지

---

1982년 12월 25일

〈前 略〉

北韓當局은 平和를 위한 서로간의 對話를 促求한 우리의 提案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우리의 決意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平和적인 統一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選擇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後 略〉

1983년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나카소네 야스히로」日本國 總理大臣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3년 1월 12일

〈前 略〉

4. 大統領과 總理大臣은 최근의 國際情勢에 관하여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행하고 특히 韓半島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日本을 包含한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 緊要하다는 점에 대하여 認識을 같이 하면서, 이 地域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금후에도 相互努力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總理大臣은 全大統領이 提唱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 開催 提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등의 對話努力을 지지하고,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현하의 준엄한 情勢下에서 韓國의 防衛努力이 그러한 對話努力과 더불어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評價하였다.

〈後 略〉

자이르 「살롱고」紙와의 書面質疑에 대한 答辯

---

1983년 1월 17일

〈前 略〉

質問: 大多數의 아프리카인들은 韓半島의 統一問題가 이제 단순한 國內問題가 아니며 美國과 蘇聯의 外交的 흥정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서울과 平壤은 橋頭堡의 役割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閣下께서 全아프리카人들 특히 자이르인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1945年 韓半島分斷의 주된 책임은 美國과 蘇聯에 있습니다.

韓半島의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美·蘇·中共·日本 등 強大國은 韓半島問題에 깊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極東에 있어서 強大國의 相互學關係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韓國問題는 民族自決原則과 內政不干涉原則에 입각하여 外部干涉없이 韓國人間의 직접 協商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굳은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에서 본인은 지난해 南北韓頂上會談을 北韓에 提議한 바 있으며, 지난 1月에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北韓側에 提示한 바 있습니다.

南北韓間의 相互交流, 武力對決 止揚, 서울과 平壤에 常駐連絡代表部設置 등을 內容으로 하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締結」로 관계를 정상화한 후에 南北韓住民을 대표로 하는 「民族統一 協議會」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統一憲法을 起草하고 이를 南北韓 國民投票에 의해 확정하며 統一憲法에 따른 總選으로 統一政府를 수립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民族이 그토록 所望하는 平和統一의 가장 빠른 길임을 本人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質問： 軍備縮小問題에 있어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무관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軍備縮小가 과연 달성되리라 믿습니까?

答辯： 美國과 蘇聯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東西間의 軍備는 相互間의

軍縮에 대한 認識의 差異 및 利害相衡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류의 소망인 전쟁, 특히 핵전쟁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질적인 軍縮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韓半島에 있어서도 緊張緩和의 措置로 南北韓 相互間의 軍備縮小가 고려될 수 있으며, 본인은 이 문제도 포함하여 南北韓間의 信賴回復을 위한 民族和合方案을 北韓에 提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政策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계속적인 軍備增強으로 인해 야기된 南北韓間의 軍事的 不均衡이 尙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南北韓間에 있어서는 우선 무엇보다 對話의 再開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後 略>

## 83年度 國政演說

1983년 1월 18일

<前 略>

祖國이 解放된지 38年째를 맞는 지금, 우리는 여전히 南北分斷과 軍事的 對峙 속에서 統一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동과 혼란이 지배하는 世界史의 轉換點에서 우리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헤치고 민족의 生存과 繁榮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안으로 平和統一을 향한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을 더욱 強化하고 밖으로는 國際社會에서 민

족의 權益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1世紀 동안 겪어야 했던 國權喪失과 國土分斷의 뼈아픈 受難을 완전히 극복하고, 또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우리 後孫들이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우리 世代안에 祖國統一의 歷史的 課業을 우리 손으로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가까운 將來에 統一을 향한 民族의 進路를 확고히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民族은 또다시 世界舞臺의 변두리로 밀려나 國際政治의 희생물이 되고 과거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은 우리 겨레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헤쳐 나가는 절박한 現實問題인 동시에 겨레의 運命을 좌우하는 중대한 民族의 將來問題인 것입니다.

우리가 統一에 대한 確信을 가지고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統一의 基盤과 原動力은 南北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南北이 진정으로 민족의 利益을 優先시켜 平和統一을 추구한다면 思想과 制度의 장벽을 과감히 뛰어넘어 조건없는 대화에 마주앉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觀點에서 지난해 이 자리를 통하여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내외에 천명하고 北韓側에 대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조속히 開催하여 民族의 現實問題와 將來問題를 包括적으로 協議할 것을 거듭 촉구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平和統一을 바라는 民族全體

의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側의 주장까지도 적극 包容해서 南北對話의 길을 폭넓게 열어 놓은 提案입니다.

統一憲法을 제정하기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의 構成과 統一의 障礙要因을 제거하고 平和統一의 途徑을 마련하기 위한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締結 등을 基本骨子로 하고 있는 우리의 統一方案은 文字 그대로 民族和合과 民主統一로 가는 가장 바른 길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자기가 원하는 統一方案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탈피하고, 民族全體의 自由意思가 충분히 反映되는 폭넓은 對話를 통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問題를 협의함으로써 민족의 進路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統一方案을 둘러싸고 一方的인 主張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問題解決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相互間的 緊張과 對立을 助長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統一方案을 提示한다 해도 말로만 統一을 主張하면서 統一을 위한 對話를 거부한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과 같은 극히 不自然스러운 南北關係를 청산하고 歷史의 召命과 民族의 興望에 따라 접촉과 對話의 문을 과감히 열어 놓기 위하여 하루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열려야 한다고 主張하는 바입니다.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前提條件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거래 전체의 統一意志를 結集시키고 거래의 進路를 개척

해 나가는 공동의 廣場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접촉과 對話의 廣場을 하루 속히 마련해 보자는 것이 본인이 強調하고 있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참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 南北韓間의 긴장을 완화하고 戰爭再發을 방지하기 위한 效果的인 措置를 강구하며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北韓이 主張하는 統一方案을 包括的으로 協議함으로써 統一問題 解決의 土臺를 마련하고
- 國際舞臺에서 南北韓間의 過當競爭으로 인해 빛어지고 있는 民族力量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實踐的 措置를 講究하고
- 나아가서 平和統一을 촉진시키기 위한 國際的인 與件을 造成하는데 劃期的인 進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北韓側에 대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이의 조속한 開催에 동의할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後 略〉

## 파키스탄 「장」紙와의 書面會見

1983년 4월 29일

〈前 略〉

質問：韓國의 統一展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答辨： 유구한 單一民族의 歷史를 갖고 있는 韓國民族에게 있어서 祖國의 再統一은 지상의 民族的 課業입니다.

韓國의 分斷은 韓民族의 의사와 관계없이 生成된 것으로서 그 再統一은 반드시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굳은 신념입니다.

우리는 1970年代初에 韓半島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南北對話를 主導, 그간 여러 形態 및 各級 水準의 對話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읍니다만 北韓側의 일방적인 거부로 1980年 9月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中斷되고 말았읍니다.

본인은 對話再開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81年 아무런 前提條件없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提議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82년에는 國民投票에 의해 統一憲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平和統一方案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우리측의 對話를 통한 問題解決努力에도 불구하고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北韓은 현재 권력세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血眼이 되어 있기 때문

에 당분간 對話에 응해 올 展望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退任諮問委員에게 보내는 親書

---

1983년 5월 10일

〈前 略〉

統一은 우리 世代 모두의 召命이며 民族의 至上課業인 것입니다. 이 召命에 따라 본인은 1981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과 相互訪問을 提議하였고 다시 작년에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對內外에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統一提議와 方案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것은 또한 南北韓間의 불필요한 經費支出과 人力投入등 막대한 精力消費를 방지함으로써 民族의 福利를 증진시켜 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아직도 時代錯誤的인 赤化統一 野慾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共產世襲王朝體制를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를 굳게 닫고 주민을 國際盲人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北韓社會의 門戶를 開放함으로써 同族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全體會議 開會辭

---

1983년 6월 1일

親愛하는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과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6千萬 同胞 여러분!

우리는 오늘 國運의 隆盛과 더불어 어느 때보다 강열하게 불타오르는 겨레의 의지를 모아 祖國統一을 향한 힘찬 前進을 더욱 加速化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本人은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가 歴史的인 첫 발을 내디딘지 2年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統一의 길을 앞당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높이 評價하면서 諮問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致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계각층을 代表하는 諮問委員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의 政治的·社會的 安定을 해칠 우려가 있는 不安要因을 解消시키는 데 스스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着實한 國力伸張을 先導함으로써 마침내 統一의 氣運이 온누리에 서서히 싹터 오르게 한 것은 우리 모두 다함께 慶賀해마지 않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憲法에 의해 設置된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의 議長으로서 6千萬 겨레의 統一念願과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근 1世紀에 걸친 시련의 民族史를 깨끗이 清算하고 바야흐로 先進된 統一國家를 기약하는 民族底力의 最絶頂期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世界史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中心舞臺에서 당당한 主役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同族相殘과 대립으로 얼룩진 分斷의 障壁을 하루속히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그 제일의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나라가 解放된지 38年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는 同族間의 斷絶은 민족의

力量을 낭비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시련과 고통의 根源인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 體制內的 矛盾이 극도에 달한 北韓共產集團의 심상치 않은 動態와 그칠 줄 모르는 對南挑發 企圖는 언제 또 다시 同族相殘의 慘禍를 불러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激動과 昏迷가 지배하는 오늘의 國際情勢 또한 韓半島에 어떠한 波及 效果를 가져올지 모르는 不確實性의 狀況을 造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스스로의 生存과 繁榮을 保障하기 위해서라도 한 형제끼리 만나듯 거리낌 없이 서로 만나 진정한 和合과 統一의 길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民族의 장래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80年代에 기필코 民族 和合과 民主統一의 轉機를 열 수 있도록 튼튼한 主體的 力量을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統一聖業은 남이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 主體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消極的인 姿勢로서는 統一課業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일인 것입니다.

온 겨레가 슬기와 힘을 總結集하여 우리를 둘러싼 國際環境까지도 統一大業을 達成하는 데 유리하도록 主體的으로 이끌어 가야만 비로소 統一의 길은 우리앞에 활짝 열릴 것으로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同胞 여러분!

南北이 1300年 以上을 單一國家・單一民族으로 살아왔다는 歷史의 뿌리는 民族統一의 원동력이며 그 기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人爲的 分斷이 長期化되고 있는 가운데 民族史의 흐름에 逆行하는 北韓의 異質化策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민족의 單一性을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참으로 중대한 岐路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統一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다면 單一民族으로서의 우리의 뿌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悠久한 民族史의 守護를 위하여 우리는 對決의 時代를 對話의 時代로, 그리고 葛藤의 時代를 和合의 時代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 잘 아는 바와같이 北韓共產集團은 입으로는 민족과 統一을 말하고 있으나 행동은 그와 正反對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平和統一을 말하면서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統一을 위한 그 어떤 對話에도 應하지 않는 反平和·反統一의 矛盾된 姿勢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北韓共產集團은 民族의 團結을 입에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公公연하게 民族成員間의 葛藤을 追求하여 分裂路線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相對方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나 統一問題를 政治宣傳에 惡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對決時代의 遺物입니다.

본인은 第5共和國出帆 以後 民族和合과 統一의 길을 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도 包容的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본인이 이미 밝힌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提議는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統一의 大道를 여는 가장 합리적인 措置로서 内外의 全幅的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提議를 모두 외면하고 對話의 廣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統一은 統一이 아니며 서로 오가지 않는 統一도 統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對話와 交流를 기피하는 것은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하겠읍니다.

南北韓이 진실로 民族을 위하고 平和的 統一을 追求한다면 서로 對話와 交流를 두려워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北韓側에 對하여 統一의 主體인 온 겨레 앞에 門戶를 開放하고 하루 속히 南北對話의 廣場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世界는 異民族끼리도 이념의 障壁을 넘어 서로 개방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地球村時代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루 빨리 서로 담을 헐고 화합과 統一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이러한 開放의 歷史的 大勢에 主體的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內外 同胞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0月 서울에서는 國際議會聯盟總會가 열립니다.

이 會議에 參加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의 代表들이 우리나라를 訪問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國際的 行事に 北韓의 代表들도 많이 參席하여 우리 민족의 화합된 모습을 온 世界에 보여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겨레의 念願인 統一을 이룩하는 데도 매우 귀중한 契機를 만들어 줄 것으로 本人은 確信하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는 만약 北韓의 代表들이 서울을 訪問한다면 그들을 같은 兄弟로서 따뜻이 환영할 것이며 그들이 서울에 와서 北韓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체의 便宜를 提供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同胞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발전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世界史의 轉換點에서 先進祖國의 創造와 統一祖國의 具現을 위해 神秘에 가까운 민족의 生命力과 底力을 集中하여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고 南北韓의 6千萬同胞가 和合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統一祖國을 完成하는 것이 우리가 이 時代에 이룩하고자 하는 至上的 目標이며 本人의 간절한 所望인 것입니다.

〈後 略〉

**第38周年 光復節 慶祝 및 獨立紀念館 起工式 致辭**

1983년 8월 15일

- 親愛하는 國內外 6千萬同胞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提議를 모두 외면하고 對話의 廣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는 統一은 統一이 아니며 서로 오가지 않는 統一도 統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對話와 交流를 기피하는 것은 統一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까.

南北韓이 진실로 民族을 위하고 平和的 統一을 追求한다면 서로 對話와 交流를 두려워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本人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北韓側에 對하여 統一의 主體인 온 겨레 앞에 門戶를 開放하고 하루 속히 南北對話의 廣場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世界는 異民族끼리도 이념의 障壁을 넘어 서로 개방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地球村時代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루 빨리 서로 담을 헐고 화합과 統一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여 이러한 開放의 歷史的 大勢에 主體的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內外 同胞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0月 서울에서는 國際議會聯盟總會가 열립니다.

이 會議에 參加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의 代表들이 우리나라를 訪問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國際的 行事に 北韓의 代表들도 많이 參席하여 우리 민족의 화합된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겨레의 念願인 統一을 이룩하는 데도 매우 귀중한 契機를 만들어 줄 것으로 本人은 確信하고 있습니다.

우리 政府는 만약 北韓의 代表들이 서울을 訪問한다면 그들을 같은 兄弟로서 따듯이 환영할 것이며 그들이 서울에 와서 北韓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체의 便宜를 提供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同胞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발전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世界史의 轉換點에서 先進祖國의 創造와 統一祖國의 具現을 위해 神秘에 가까운 민족의 生命力과 底力を 集中하여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함께 복된 삶을 누리는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고 南北韓의 6千萬同胞가 和合하여 한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는 統一祖國을 完成하는 것이 우리가 이 時代에 이룩하고자 하는 至上的 目標이며 本人의 간절한 所望인 것입니다.

〈後 略〉

## 第38周年 光復節 慶祝 및 獨立紀念館 起工式 致辭

1983년 8월 15일

- 親愛하는 國內外 6千萬同胞 여러분!

나라를 되찾은 光復, 그날의 감격이 祖國統一의 熱望으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뜻깊은 第38回「光復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날에 護國先烈的 愛國丹心이 살아숨쉬는 이곳 木川 黑城山 기슭에서 自主와 獨立의 國民的 意志를 萬歲에 傳하는 殿堂이 될 獨立記念館을 起工하게 된 것을 同胞 여러분과 함께 衷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民主政府를 수립한지 서른다섯 돌이 되는 날로서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더욱 깊은 감회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國權回復과 民主出帆의 新紀元을 연 「8·15」를, 오늘 內外同胞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희망과 드높은 자신감속에서 慶祝하게 된 것은 先烈들의 高貴한 獻身의 결과임을 想起하면서 오늘의 榮光을 바치는 바입니다.

同胞 여러분!

「8·15」光復의 참다운 의미는 祖國統一을 성취하고 번영의 先進國을 건설하는 위대한 새 歷史開拓의 召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엄숙한 召命에 따라 世代를 잇는 創造의 獻身과 永遠을 내다보는 번영의 의지로서 民族의 底力을 가꾸어 나온 것입니다.

民族史의 斷切 36年을 復元하는 光復이 하필이면 累千年 單一民族을 南北으로 離散시키는 고통의 시발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 통탄스러운 悲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슬프더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옷소매만 적시고 있어서는 그 슬픔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위대한 凝集力을 歷史와 世界에 자랑해 보일 수 있는 絶好의 기회임을 자부하면서 統一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디더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수한 外侮과 戰禍속에서도 數千年을 單一民族으로 살아온 우리의 生命力は 우리 민족이 아니면 도저히 가꿀 수 없는 奇蹟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한 奇蹟의 힘을 다시 發揮할 때를 우리는 지금 必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召命에 충실할 때 우리는 分斷을 統一로 바꾸는, 그것도 平和的으로 바꾸는 神話를 人類歷史에 기록하는 민족으로서 世界人の 崇拜을 받게 될 것입니다.

同胞 여러분!

우리가 오늘 獨立記念館을 세우는 첫 삼질을 하게 된 것은 第2光復의 召命을 具現하는 우리 모두의 투철한 決意와 힘찬 전진의 徵表인 것입니다.

새로운 光復의 바탕은 흔들림없는 民族史觀의 定立이라는 信念에 따라 우리 國民 모두가 獨立記念館建立運動에 나선지 1年만에 오늘 그 튼튼한 基礎를 닦는 役事를 着手하게 되었습니다.

男女老少와 財産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우리 겨레는 오직 自主와 獨立의 한 뜻으로 뭉쳐 獨立記念館에 쓰일 벽돌을 장만하고 그 터를 닦은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이 運動은 民族和合의 一大勝利이자 民族自尊의 위대한 결기였을 뿐 아니라, 바로 第2의 光復運動 그것이었다고 본인은 確信하고, 이 運動에 主人으로 참여한 內外同胞 여러분에게 뜨거운 敬意와 感謝를 표하는 바입니다.

柳寬順 烈士의 만세소리와 尹奉吉 義士의 愛國忠節을 비롯하여 수많은 先烈들의 獨立意志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忠武公 李舜臣將軍의 愛國魂이 오늘도 굽어보고 있는 이곳 黑城山 언덕에 멀지않아 國難克服과 自主獨立의 위대한 歷史를 集大成한 獨立記念館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民族의 강인한 獨立意志를 國力培養의 原動力으로 승화시켜 겨레의 영원한 번영을 상징하는 民族精神의 道場이라고 하겠습니다.

本人은 뜻깊은 이날을 계기로 民族과 民族史를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意志가 不退轉의 것임을 다시 한번 確認하면서, 이 獨立記念館을 길이 後孫에게 물려줄 위대한 遺産으로 가꿀 것을 온 겨레가 함께 다짐하는바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獨立記念館이 그 어떤 風雨에도 흔들림이 없을 튼튼한 건물이 되도록 工程에 萬全을 기하는 한편, 公私의 遺物과 記錄 그리고 모든 資料를 갖추는데 舉族的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歷史的인 起工式을 民族底力의 跳躍臺로 하여 굳건한 民族史觀과 國民和合을 지켜 國力伸張과 祖國統一의 새로운 光復을 이룩하는 노력을 加一層 強化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同胞 여러분!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바라는 온 겨레의 興望이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北韓共產集團의 反民族的이고 反平和的이며 反統一的인 자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反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兄弟끼리 싸우지 말고 정답게 함께 잘 지내는 것도 反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同胞끼리 서로 말을 나누는 것도 反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反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統一은 겨레끼리 얼싸안고 오손도손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얼싸안을 수도, 오손도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統一을 얘기하면서도 南北對話에는 끝끝내 反對하고 있는 北韓共產集團의 態度는 결국 만나지 않고 얼싸안자는 式의 어이없는 欺瞞論理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平和的인 祖國統一에 대해 一抹의 意向도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立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6千萬 同胞의 構成比率로 보아 한줌의 값어치도 채 안되는 特定派黨이나 特定世家의 持續的인 榮華를 固守하기 위하여 民族全體의 행복으로 直結되는 現狀變更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統一의 基礎가 되는 民族의 同質性마저 심각하게 멩들어 가고 있는 현상은 民族史的 立場에서 진실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인 것입니다.

同胞 여러분!

지금 内外의 非常한 關心 속에 전개되고 있는 離散家族찾기運動은 우리는 물론 人類愛를 가진 世界人들에게 깊은 감동과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가깝도록 生死를 모르던 血肉들이 劇적으로 再會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과 아직도 血肉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離散家族들의 애절한 모습은 同胞 모두에게 뜨거운 感銘과 가슴 저미는 아픔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離散家族찾기運動은 남쪽에 와있는 同胞들끼리의 상봉밖에 주선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쪽에 와서 離散된 家族들보다도 南北으로 離散된 家族들이 훨씬 더 많으며, 그들은 상봉의 기쁨은 커녕 生死의 소식조차 알아볼 길이 막혀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南北離散家族들의 아픔은 우리 겨레 모두의 아픔이며 그들의 悲願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 겨레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南北韓間의 이념과 제도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헤어진 血肉들의 生死確認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文明社會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명분에 의해서도 南北離散家族問題의 해결을 더 이상 늦추거나 회피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人間의 壽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결국 離散當事者의 恨을 生前에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離散家族問題의 해결을 더 이상 遲延시키는 것은 人倫에 反하는 일이라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北韓當局者들은 이 절실한 離散家族들의 아픔과 피맺힌 절규를 直視하고 같은 人間으로서의 기초적인 良心에 依據하여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同胞 여러분!

본인은 지난해 光復節을 기하여 北韓을 포함한 모든 共產圈에 居住하는 同胞들에게 우리 대한민국부터 개방할 것을 宣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國際會議에 北韓代表들이 參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本人은 南北韓間에 접촉과 對話의 門이 열려 모든 同胞들이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에 관계없이 祖國疆土를 자유롭게 往來할 수 있을 때, 우리 民族의 진정한 和合이 다져지고 第2의 祖國光復을 앞당길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同胞 여러분!

北韓共產集團의 끊임없는 武力赤化野慾과 挑發策으로 당장에는 統一의 展望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離散과 葛藤의 歷史에 終止符를 찍는 分斷 清算의 時代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國權喪失의 歷史를 되풀이하지 않을 만큼 힘있는 나라로 성

장했으며, 國力の 伸張과 더불어 統一을 성취하는 실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富強하고 繁榮된 先進祖國은 이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으며, 6千萬의 僑民인 平和統一의 神話的 偉業은 멀지않아 우리의 손으로 실현되고 말것입니다.

오늘 起工하는 이 獨立記念館은 바로 繁榮과 統一의 위대한 民族史를 創造하는 온 겨레의 生命力을 開花시키는 榮光의 前進基地가 되는 것입니다.

民族自尊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한 礎石으로 하여 의지와 긍지로 充滿된 民族의 殿堂을 建立하고, 그러한 의지와 긍지를 原動力으로 삼아 우리 모두 精誠을 다해 나가면 統一된 先進祖國을 具現하는 第2光復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야 말 것입니다.

<後 略>

## 夏季 記者會見

1983년 8월 23일

<前 略>

質問： 最近 國內外 많은 離散家族들이 再會하여 南北對話와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關心을 크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大統領께서는 南北對話와 統一展望에 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答辨： 離散家族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는 같이 울고 같이 밤을 새웠습니다.

나도 그 피 맺힌 恨의 생생한 現場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만남의 現場과 국민 모두의 눈물은 너무나 순수하고 고귀한 人間愛요 同胞愛이며 人類愛의 確認이기 때문에 이것을 分析하고 해석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에 終止符를 찍고 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이번 일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再會의 감격과 비극의 뼈저린 재연에 한마음으로 녹아들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離散家族이라는 自己確認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離散家族만의 것이 아니라 南과 北, 韓民族全體의 고통이며 흘러간 33年間の 허송에 대한 痛憤은 個人만의 분함도 아니라 南과 北으로 離散된 民族全體의 것입니다.

이 만남의 모습은 平和를 사랑하는 世界의 良心을 울렸습니다. 世界 사람들이 이 再會와 悲劇의 場面에 같은 人類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유독 같은 同族, 같은 離散의 被害者인 北韓住民들은 이 현장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離散家族의 소원은 어떤 이유, 어떤 사정으로도 매몰될 수 없으며 즉각 만남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強調하면서 北韓當局이 온 거래앞에 門戶를 열고 하루속히 南北對話의 廣場에 나오기를 促求하는 동시에 南北離散家族찾기와 再結合을 위한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南北對話나 統一은 北韓共產集團의 反民族的 無誠意로 말미암아 현재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南北對話의 再開와 統一의 성취가 80年代에 결정적인 轉期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新任常任委員 및 地方諮問委員 接見時 격려말씀

---

1983년 8월 30일

<前 略>

지금 우리는 南北對立과 離散의 민족적 고통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分斷을 청산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提議를 통해 統一大道를 열었으며 先進祖國創造를 위한 策도에 올라섬으로써 새 歷史 創造를 加速化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가족과 혈육을 찾아주는 것은 어떤 제도에 앞서서는 人倫이기 때문에 離散家族찾기運動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人類의 양심을 試驗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悭吝도 없이 民族의 結合을 외면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이야말로 反民族的·反平和的으로 天倫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온 세계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더이상 天倫에 어긋나는 反民族的 企圖를 버리고 하루빨리 門戶를 열어 對話의 廣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後 略>



## 國際議會聯盟 서울總會 演說

1983년 10월 4일

〈 前 略 〉

우리가 韓半島平和의 定着과 平和的인 統一成就를 國民的 至上課題로 삼고 있는 것은 戰爭의 傷痕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大韓民國과 본인이 기울이고 있는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努力은 단순한 政治的 몸짓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同族相殘의 悲劇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絶실한 信念에 根據하고 있음을 強調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大韓民國은 對話를 통하여 南北韓間의 信賴를 回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南北韓關係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꾸준히 展開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본인은 지난 81년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우선 아무런 조건없이 만날 것을 北韓側에 提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北韓에 가도 좋고 그 쪽에서 서울에 와도 좋으며 다른 곳에서 만나든지 또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것은 北韓側이 좋을대로 하고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本人은 작년 1月에도 南北韓이 民族的 和合을 이룩하고 民族全體의 統一意志를 한데 모아 統一憲法을 만들어 그에 따라 民主方式으로 統一國家를 완성하자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內外에 밝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建設的인 提議에 대해 北韓側은 아직 肯定的인 反應을 보

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對話와 화합만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保障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信念아래 忍耐心과 誠意를 가지고 北韓側이 對話의 廣場으로 나오도록 모든 努力을 다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後 略〉

## 「버마」事態 收拾에 즈음한 特別談話

---

1983년 10월 20일

〈前 略〉

본인은 統一과 번영을 향한 先進祖國 創造의 과업을 具現하는데 본인의 身命을 바쳐 나갈 것을 殉國英靈 앞에 다시금 맹세한 바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國民 여러분 앞에 거듭 誓約하는 바입니다.

〈中 略〉

우리는 이제 모두 울분과 傷心으로부터 떨쳐 일어나 小異를 버리고 大同團結하여 80年代에는 반드시 統一大業을 성취하고 부강한 先進祖國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江山, 이 祖國, 이 겨레의 빛나는 歷史, 榮光된 勝利에의 그 날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前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後 略〉

## 1984年度 豫算案 國會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1983년 10월 24일

〈前 略〉

第 5 共和國 出帆以後 政府가 推進해온 統一政策의 基調는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韓間에 민족의 화합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民族 全體의 올바른 의사가 反映될 수 있는 방식으로 平和的 統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包括的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提示하여 언제든지 北韓側과 對話를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의 開催를 促求하고 있습니다.

北韓側은 우리의 對話努力에 대해 줄곧 否定的 姿勢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6·25」의 쓰라린 상처를 治癒하고자 汎國民的으로 추진하고 있는 離散家族찾기運動마저 이를 惡意的으로 비방하고 民間旅客機를 격추시킨 蘇聯의 만행을 비호하고 나서는 非人道的이고 反民族的인 態度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現時點에서 北韓의 反統一, 反平和의 자세로 말미암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統一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꾸준히 國力을 길러 나가면서 國內外的 情勢變化에 슬기롭게 對處해 나간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祖國統一은 반드시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앞에 나타날 것임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後 略〉

## 「로널드 레이건」美合衆國大統領 到着 歡迎式 歡迎辭

1983년 11월 12일

〈前 略〉

우리는 모든 分野에서 착실한 成果를 이룩하고, 이제 그 토대위에 祖國의 繁榮과 平和統一이라는 民族史的 召命을 具現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으고 슬기를 發揮하여 힘차게 邁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念願과 實踐努力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이 持續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確信하고 있습니다.

〈後 略〉

## 「로널드 레이건」美合衆國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3년 11월 12일

〈前 略〉

본인은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을 방지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地域의 안정과 번영, 나아가 세계의 平和와 自由民主主義의 발전에 기여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強調하고자 합니다.

暴力과 侵略을 일삼는 北韓共產集團은 이 地域의 자유와 平和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지난 10月 9日 랭군爆發事件의 眞犯은 바로 北韓共產集團으로서 關係國의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세계 만천하에 그 정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中 略〉

세계의 모든 平和愛護 國民들은 北韓共産集團의 暴力妄動을 단호히 懲罰하고, 國際社會에서 추방하는데 다 함께 分명한 實踐意志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힘의 言語에만 귀를 기울이며 힘앞에서만 굴복하는 狂的인 暴力 輩들이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힘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진정한 對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레이건大統領閣下의 힘을 통한 平和의 政策은 바로 韓半島의 경우에 있어서 확고하게 適用되어야 할 政策이 아닐 수 없습니다.

〈後 略〉

## 全斗煥 大統領閣下와 「로널드 레이건」 美合衆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83년 11월 14일

〈前 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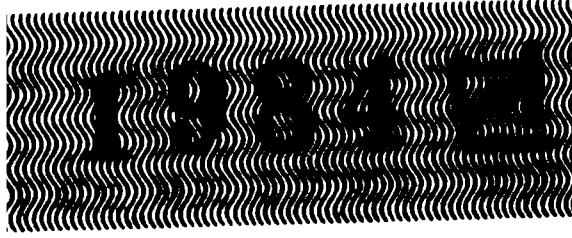
5. 全大統領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韓民族의 堯원인 平和統一을 달성하기 위한 大韓民國 政府의 繼續的인 南北對話 再開努力 및 平和統一政策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레이건大統領은 大韓民國의 진지하고 인내있는 노력에 대한 美國의 지지를 표시하면서, 특히 全大統領이 1982年 1月 22日 提議한 포용성 있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留意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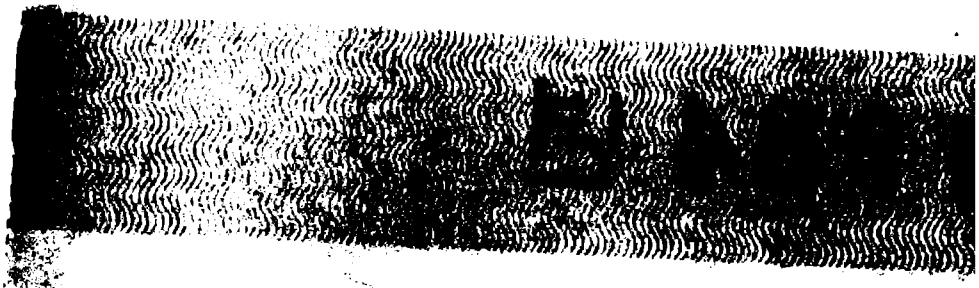
- 레이건大統領은 大韓民國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가 없는한 美國이

北韓과의 對話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再闡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北韓의 主要同盟國들이 韓國에 대하여 相應한 措置를 취하지 않는 한 北韓에 대한 어떠한 一方的 措置도 이 地域의 안정과 平和增進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再確認하였다.

〈後 略〉



18  
19  
20  
21





## 新年辭

1984년 1월 1일

### <前 略>

우리가 다져온 안정과 우리 국민 모두의 드높은 자신감은 平和와 統一, 그리고 번영의 民族史를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先祖들은 「白紙 한 장도 마주들면 가볍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세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平和와 正義를 누구보다 알차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해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헤쳐나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 <後 略>

## 84年度 國政演說

1984년 1월 17일

### <前 略>

작년 「아웅산」사건에서 본인이 禍를 면한 것은 國運의 가호와 국민 모두의 심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원수로서 불과 몇 분의 거리로 生과 死의 경계를 목도한 본인은, 나라의 일꾼들을 잃은 애통함과 더불어 인류세계와 인간적 행복의 가장 큰 敵이 바로 폭력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본인의 平和에 대한 신념은 누구보다 못지 않은 것으로 자부해왔지만, 이제 본인에게 있어 폭력에 대한 증오와 平和에 대한 신념은 그 무엇에도 다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至高의 신앙으로서 굳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듣고 같이 본

사실로서, 국민 여러분과 신념을 함께 하고 계시리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平和와 正義는 인류공통의 이상이며, 비단 어느 한 시대 또한 어느 한 민족이나 개인의 염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많은 세월을 침략의 희생속에 보내면서, 어느 민족보다도 드높은 평화의 의지를 굳게 단련해온 文明民族입니다.

더우기 36년간의 國權喪失과 國土分斷, 그리고 同族相殘의 유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 고통의 근원인 전쟁에 대한 거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절실한 召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곡의 민족사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향해 펼쳐 일어난 第5共和國이야말로 폭력의 배제, 즉 平和와 正義가 그 행동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先進祖國 創造의 과업은 바로 이러한 民族史的 使命을 완수하려는 실천노력인 것입니다.

지난 1년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平和와 安定은 막연히 입에 올리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살림,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후세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第5共和國 출범 4년째가 되는 올해는 폭력없는 세계질서의 구축, 폭력에 의하지 않는 민족통일의 성취, 그리고 폭력없는 政治와 社會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의지가 더욱 드높게 발현되기를 본인은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議員 여러분.

오늘의 세계는 작년 한 해의 갖가지 紛亂이 웅변으로 상징하는 바와 같이,

다음 순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不確實性和 不安定性의 시대로 성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명을 파괴하는 공포의 망령으로서, 그 실체를 전세계에 드리우면서 문명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科學文明의 소산인 핵무기는 현재, 지구와 인류를 한두번도 아니고 열번이라도 파멸시킬 만큼 이 지구상의 곳곳마다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 때문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는 바야흐로 大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세에 놓여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항용 先進國이라고 자처하는 강대국이 아무런 분별없이 反平和의 범죄를 자행한 사례는 우리가 대한항공기 피격사건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더우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가 말해주듯이 각국의 자국이 추구 경향 역시, 경쟁의 정도를 넘어 전쟁을 방불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世界平和에 대한 중대한 危害요소로 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작년 국제의회연맹총회에서 밝혔듯이, 정의로운 세계질서 창조의 제 1조는 利己와 小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데서 탈피하여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와의 사이에 인정과 평화가 깃들도록 하는 데에 두어져야 하겠습니까.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和合과 平等, 그리고 協力の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모든 국가가 우리와 신념을 같이 하여 행동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平和의 世界史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세계를 여는 개방과 국제화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본인이 그 동안 「레이전」 미국 대통령과의 상호 방문을 통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나카소네」일본 수상과의 회담, 그리고 동남아·아프리카·카나다순방 등 수십개국의 정부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世界平和와 正義의 중요성에 관해 시종일관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러한 발걸음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平和와 正義, 그리고 協力の 뜻을 넓히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치고 개척의 役事에 나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짐이 없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사람은, 그 국적의 여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우리의 친구로서 따뜻이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와 平和의 理想을 함께 하는 나라와 그 국민은 모두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고 동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우방과 유대와 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理念과 制度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모든 나라들에 대해 과감한 개방과 협력정책을 앞으로도 더욱 즐기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요한 바오로 2세」 로마교황 聖下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의 방한이 우리의 平和意志를 더욱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 모두의 國寶으로 환영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議員 여러분.

平和에 대한 신념과 폭력에 대한 거부는 민족적 지상과제인 統一聖業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결같이 취해온 자세입니다.

통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 오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단은 한 핏줄과 한 역사, 그리고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민족인 우리 6천만 동포가 다같이 겪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의 제 1 조는 주和에 있어야 하며, 동족의 불행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낳게 될 폭력의 사용은 그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民族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모두는 스스로 統一聖業 완수의 굳건한 주체가 되겠다는 각오를 더욱 투철하게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정신에서 그 동안 주和的이고도 民族自決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인은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당사자가 對話를 통해서 전쟁방지를 위한 조치와 쌍방이 제기하는 통일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사코 평화를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전쟁을 획책하고, 폭력노선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同族殺傷의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민족의 화합을 해치는 한편, 폐쇄사회의 벽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동포를 민족과의 만남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킴으로써 민족동질성의 영구분단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랭군사건에 대하여 이 시간까지 단 한마디의 是認이나 사과도 없이 欺瞞과 糊塗에 급급함으로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려 왔으며,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랭군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힘으로 응징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며, 또 응징의 수단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平和意志가 너무나 깊고 또 그 집념이 너무도 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의지와 집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전 세계의 규탄을 받는 북한공산집단이기도 하지만, 統一聖業 성취를 위한 길은 남북대화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대화의 탁자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공산집단은 이러한 우리의 참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들의 自滅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平和理想이 우리의 생존자체를 말살하는 폭력까지를 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동안 즐기치게 감행한 무장공비 침투기도는, 우리 국군의 철저한 대처와 우리 국민의 경각심에 의하여 정확하게 적발 저지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폭력도발은 우리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의해 계속 좌절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도발을 계속 자행할 때는, 다시는 그러한 도발을 할 기력이 없도록 再起不能의 응징을 사양하지 않을 것임을 아울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들의 무력적화노선과 남북대화의 거부는, 이제 더이상 어디에고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平和意志는 더욱 성숙했으며 우리의 統一力量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이제부터라도 폭력노선을 버리고 平和와 民族自決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합리적인 통일노선에 호응해 나선다면, 80년대 안에 統

一偉業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後 略〉

## 亞·美州地域 公館長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1984년 1월 19일

〈前 略〉

본인이 그 동안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인간의 理性이나 國際常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야만과 폭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國力の 격차에서 오는 초조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과 기만책동을 더욱 격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폭력집단과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집단을 對話의 相對로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生存과 安全을 위협하는 국제정세의 不確實性和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각국의 이익추구 경쟁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公館長 여러분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고 가속화하는 國力伸張과 國運開拓의 선봉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後 略〉

## 「호크」濠洲首相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4년 2월 6일

· 〈前 略〉

韓半島에는 30여년 전 濠洲 젊은이들의 피어린 헌신과 6천만 남북한 동

포의 즐기찬 염원에도 불구하고 平和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韓國戰爭으로 南北에 흩어진 離散家族들이 평생이 다하도록 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北韓當局에 대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비롯하여 南北韓社會의 상호개방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등 일련의 제의를 내놓고, 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폭력도발을 계속하면서 平和와 統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北韓側이 同族殺傷의 만행과 소위 3자회담의 제의를 동시에 연출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南北韓間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南北韓 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北韓側이 폭력주의와 그러한 속셈을 감추어 보려는 얇은 껍질을 버리고, 하루속히 平和와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성의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응해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後 略>

## 第65周年「3·1」節 紀念辭

1984년 3월 1일

<前 略>

3·1運動은 우리 민족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민족의 指標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천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었으며, 또 一瞬의 단절도 없이 영원히 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엄숙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세습왕조가 아닌 民主共和의 나라로서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향유해야 하며, 평화의 파괴가 아니라 평화의 창조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 3·1運動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제시한 목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運動은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발전을 이룩하는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는 男女老少와 분야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총참여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또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正義와 理性으로 대처하는 反暴力의 平和哲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先烈들의 예지야말로 우리 민족이 年年歲歲로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야 할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 中 略 〉

民主와 正義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욱 굳건한 民族史의 주체로서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도약을 위한 전진에 화합과 단결로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3·1運動의 遺業을 완성하는 길은 바로 민족통일의 聖業을 이룩하는데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外來 異端思想의 신봉과 세습왕조의 구축, 그리고 同族間 대화의 거부와 폭력만행의 자행은 3·1精神에 대한 모독임과 동시에 민족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제를 民族自決과 平和主義 정신 아래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세계에서 스스로의 도약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길은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民族自決과 平和主義의 3·1精神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行動指 標로 하여, 안정과 도약에 熱과 誠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民族史의 염원을 달성하는 튼튼한 기반을 창조해 나 왔습니다.

3·1 運動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책무를 다하여 先進統一祖國을 완성하 는 날 우리는 빛나는 민족의 영원한 영광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 안에 그러한 영광의 民族史가 반드시 창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함께 전진의 발걸음을 가속시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 여 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後 略〉

## 인도네시아 「안타라」通信과의 會見

---

1984년 3월 13일

〈前 略〉

질문 : 대통령각하

南北間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는 「땡군」 사건이후, 南北韓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 北韓의 기본 통일정책은 對南武力赤化이며 이 정책은 어제, 오늘에 시

작된 것이 아니고 근 40년간 지속된 그들의 기본정책입니다. 더군다나 근간에 와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더욱 잔혹해지고 발악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함께 또한 연민의 情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를 일으켜 수백만의 同族을 죽게한데 대한 분노, 수백만의 이산가족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아픔을 준것에 대한 분노, 金日成父子만을 위해 2천만 北韓 同胞를 愚民化하고 노예화 한 것에대한 분노등 우리의 분노는 상당히 깊고 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할 경우 6천만 민족이 겪어야 할 可憐할 비극, 南北韓間의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北韓 住民이 당해야 할 고통 등을 생각하면 북쪽의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측은한 생각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北韓의 집권층에 대한 분노이지 北韓 住民에 대한 분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北韓 住民에 대한 우리의 연민의 情이 北韓의 집권층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참게 한 것입니다.

본인은 韓民族이 나아갈 길은 대화와 평화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절과 전쟁을 추구하는 세력은 民族史의 이름으로 규탄받을 것이며 또한 패배하는 세력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본인은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北韓은 「랭군」 폭파사건을 저지르고는 오히려 韓國이 조작한 것이라고 허위선전을 하는 한편 南北韓과 美國이 참석하는 소위 「3者會談」 개최를 공개제의하는 등 兩面作戰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때문에 北韓의 진실성에 대해 많은 의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南北韓의 통일문제는 民族內部的의 문제이므로 北韓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외부세력의 개입없이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南北韓間의 直接對話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北韓이 우선 폭력사용을 중단하고 진실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南北韓 兩者會談을 재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後 略〉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뉴스」紙와의 會見

1984년 3월 26일

〈前 略〉

질문 : 가까운 장래에, 예를 들면 금세기 말까지는 韓國問題가 해결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 한반도 통일문제는 南北韓間의 문제인데, 현재 불행히도 南北韓間에 會談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언제쯤 통일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 원칙에 의거하여 본인은 1982년 1월22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첫째 民族自決 原則에 의거해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은 강대국들의 利害相衡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

대국들이 또다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면 韓國民은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南北韓 當局 대표가 모여 민족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신념입니다.

둘째, 통일문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족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南北韓의 어떤 일부 세력 의사만이 반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南北韓 當局 대표가 모여 진지하게 연구 검토한 統一政府 樹立案이 南北韓 국민 전체 투표에 부쳐져서 그 최종적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南北韓 當局은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남북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 40년간의 南北韓 분단기간중 北韓은 1950년도의 남침전쟁 자행을 비롯하여 1953년도 휴전후에도 수많은 무장계렬라 南派, 韓國 대통령관저 기습, 대통령 영부인 암살, 또는 최근에는 「탱군」 암살기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을 정복하여 남북통일을 시도하려한다면 이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北韓의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南北韓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南北間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統一憲法」을 채택하고 그 憲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民族和合과 民主統一原則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인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中 略〉

질문 : 저의 마지막 질문은 대통령각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임기중 특히 韓國의 정치,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길 바라고 계십니까?

답변 : …(前略)… 이자리를 빌어 본인이 추가하여 꼭 재임 기간에 성취하고 싶은것은 한반도 통일문제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北韓이라는 상대가 있어 成就時期를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지만 在任中 최소한 통일의 실마리라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현하여야 할 것은 南北統一의 直接當事者인 南北韓의 대화이므로 南北對話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인내를 갖고 北韓을 계속 설득할 작정입니다.

〈後 略〉

## 「하사날 불키아」브루나이國王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4년 4월 8일

〈前 略〉

韓國戰爭이 끝난지 30년이 지나도록 한반도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北韓의 南侵으로 비롯된 韓國戰爭의 상흔은 아직도 南北으로 흩어진 1천만 離散家族들이 서로 生死조차 알 수 없는 고통을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東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만큼 그 해결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과 南北韓間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도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暴力挑發과 同族殺傷의 만행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側이 대화의 선전을 꾀면서 「랭군」 사태를 모의한 것은 한손에 폭탄을 숨긴채 다른 손으로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있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인은 北韓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간곡한 뜻을 허심탄회하게 받아 들이고, 우리의 對話提議에 부응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하사날 불키아」브루나이國王 陛下間의 共同聲明

1984년 4월 9일

< 前 略 >

10. 全斗煥 대통령은 한반도정세를 설명하면서 民族和合民主統一 方案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大韓民國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하였다.

全대통령은 또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南北韓 當事者間的 직접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제안한 南北韓 最高當局者會談이 조속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사날 불키아」國王은 韓國의 再統一은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南北韓間的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後 略〉

## 「마르텐스」벨기에首相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4년 4월 16일

〈前 略〉

오늘의 국제정세는 도처에서 분쟁과 폭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東北亞 地域에서는 최근 팽창주의 세력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커다란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蘇聯에 의한 작년의 대한항공기 격추사건과 北韓이 자행한 「랭군」 암살폭발만행 사건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잘 말해주는 명백한 사례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지역의 전쟁을 방지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을 비롯한 直接當事者會談을 개최할 것을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으나, 北韓側은 번번이 이를 외면하고 暴力挑發과 同族殺傷의 만행을 가열시켜 왔습니다. 더우기 北韓共產集團에 의한 「랭군」 암살폭발 사건과 소위 3者會談 제의의 동시전개는 그들의 상투수법인 폭발과 기



만의 2중책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北韓側의 술책을 貴國과 같은 우방들이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음을 본인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貴國과 같은 우방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과업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後 略〉

## 「칼리파」카타르國王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984년 4월 21일

〈前 略〉

殿下께서 항구적인 中東平和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력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제 3자에게 의탁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통일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南北對話의 재개와 南北韓 交流를 누차에 걸쳐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暴力挑發과 同族殺傷의 만행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北韓이 하루빨리 武力赤化의 망상에서 깨어나, 폭력과 기만책동을 청산하고 民族自決原則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殿下께서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北韓共產主義者들의 술책에 신중히 대처하고 계신 것을 본인은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後 略>

## 印度 「PTI」通信과의 會見

1984년 4월 24일.

<前 略>

질문 : 대통령각하

최근의 北韓提議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먼저 알아 두어야 할것은 우리 韓民族은 한반도에서 누천년을 한 겨례로서 살아왔고 또 單一民族國家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통일은 민족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민족을 위한 통일」, 그리고 우리 민족의 主體的이고도 獨立的인 힘과 노력에 따른 「민족에 의한 통일」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단의 淵源이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民族史의 주체인 南北韓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장래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서로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해 왔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高位代表團間的 豫備會談은 물론 北韓當局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나 韓國을 대표하는 인사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협의해 주기를 희망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화의 장소와 시간을 北韓側에 일임하기까지 했고 議題問

題에 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상기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쌍방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統一祖國의 國號나 정부형태 그리고 국회 구성을 위한 總選舉의 방법과 시기 등은 물론, 본질문제의 토의 이외에 대화의 절차와 운영문제 등 무엇이든지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인은 통일되기 전에라도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統一國家를 수립할 때까지 南北韓은 互惠平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閣僚級 全權代表를 임명하여 常駐連絡代表部를 설치하며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 등이 그것입니다.

南北對話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 同族間의 전쟁을 예방하고 민족의 장래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희망은 이처럼 절절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회담이라는 것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南北對話야말로 形式과 外樣보다는 자세와 진심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相爭과 증오가 아니라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만나야 하며, 또 상대방을 殺傷시킬 폭탄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진실한 충정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3년 10월 9일 버마에서 암살폭발사건을 자행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서는 대화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北韓當局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北韓側이 그러한 反人類的, 反文明的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각오아래 진정어린 民族愛와 平和實踐의 정신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대화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숭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後 略>

## 「요한 바오로」2세敎皇聖下 訪韓 歡迎辭

1984년 5월 3일

<前 略>

우리는 지난해 非武裝 민간항공기의 피격과 「랭군」 암살폭발사건으로 무고한 형제자매들이 暴力主義에 희생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韓國戰爭으로 말미암아 南北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은 서로의 生死조차 알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不義와 暴力의 危害와, 그로 인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대립이 아닌 대화를 추구하고 복수가 아닌 화해를 모색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걸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간사회에서 폭력과 증오를 주고 받는 그 누구도 없고, 그 누구도 獨善과 不信을 비호하지 않으며, 모두의 행복과 권리를 함께 신장시키는 和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합니다.

<後 略>

## 全斗煥 大統領閣下와 教皇聖下間 頂上會談에 관한 共同發表文

1984년 5월 3일

〈前 略〉

6. 兩指導者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南北韓 兩者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教皇聖下께서는 南北韓의 離散家族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들이 하루속히 재결합되어야 할 절박한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兩指導者께서는 한반도의 다른 한쪽인 北韓內의 住民들이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애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공동노력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後 略〉

## 「자예와르 데네」스리랑카大統領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4년 5월 28일

〈前 略〉

오늘날 세계정세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悲願에도 불구하고 可憐할 최신 무기의 발달과 함께 일부 강대국의 팽창주의와 폭력집단의 망동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그러한 反平和의 被害者로서 평화가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평화를 지키고 가꾸려는 강렬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大韓民國 정부와 국민은 모든 平和愛護國과 함께 폭력없는 화합과 평등과 정의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門戶開放과 國際化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大韓民國이 한반도에 전쟁을 방지하고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평화의 터전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北韓은 이러한 우리의 건설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작년 「랭군」만행이 전세계에 일러주듯이 국제사회에서 폭력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한편 기만책동으로 南北對話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문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直接當事者인 南北韓이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본인은 스리랑카가 非同盟會議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성원해 준데 대하여 각하와 스리랑카 국민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자예와르 데네」스리랑카 民主社會主義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984년 5월 29일

<前 略>

9. 全斗煥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을 위

하여 그가 제안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등 한반도내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大韓民國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자예와르 데네」대통령은 韓國問題는 南北韓間에 직접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스리랑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자예와르 데네」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기초위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大韓民國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中 略〉

12. 全斗煥 대통령은 韓國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南北韓이 國際聯合에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고 民族和合 및 平和統一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자예와르 데네」대통령은 韓國 국민들이 가까운 장래에 國際聯合에서 완전한 代表權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또한 國際聯合 憲章에 구현된 普遍性의 原則에 따라 이를 달성하려는 大韓民國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會를 위한 晚餐時 激勵辭

1984년 6월 1일

〈前 略〉

· 우리는 그동안 先進祖國 創造를 위해 국민적 저력과 통일의 시대를 향한 민족적 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과 번영의 확고한 기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民族的 經綸과 튼튼한 主體力量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혼미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主體意識과 自主力量을 더욱 확고하게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한반도문제가 세계인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우리 민족인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南北韓間의 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民族主體意識을 외면하고 同族相殘의 폭력노선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他民族마저 분노한 「랭군」 암살폭발만행에 대하여 한마디의 시인도 사과도 없이 기만과 호도에 급급하는 한편으로 共產宗主國에 추종하고 그에 기대어 군사력 증강을 꾀함으로써 분열과 폭력의 전쟁책동을 끈질기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 민족의 평화의지를 宣揚하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主體的인 力量을 더욱 튼튼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냉엄한 國際氣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더욱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안정의 항구적인 토대위에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멀지않아 우리 손으로 영광스러운 先進祖國과 統一國家를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北韓共產集團과의 政治思想戰에 대비하여 특  
특한 정신무장을 갖추고 통일과업을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統一役軍으  
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第1次 地域會議 致辭

---

1984년 6월 5일

〈前 略〉

諮問委員 여러분.

우리가 민족통일의 至上課題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은 처음도 평화이며 마지막도 평화여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同族의 화합을 가져올 수 없으며 전쟁이 민족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음은 우리 겨레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主體的인 力量에 의해  
서만 참다운 결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남의 힘에 의  
탁하는 것은 民族自尊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民族主體性을 저버린 事大  
主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제의한 것은 우리의 自主的인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北韓共產集團은 이러한 합리적인 대화제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同族殺傷의 폭력만행을 자행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부정하고 전쟁과 분열

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랭군」만행에 대한 단 한마디의 시인이나 사과도 없이 기만과 僞裝術策을 공공연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北韓側은 폭력과 분열노선을 버리고 하루빨리 民族良心과 主體意識을 회복하여 성의를 가지고 南北對話에 응함으로써만 민족적 죄과를 얼마간이라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南北韓間의 체육교류와 각종 국제대회에의 단일팀 출전문제는 우리가 그 동안 수차 北韓側에 내놓았던 제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의 南北韓體育人會談을 통하여 다가오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 南北韓이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체육교류와 올림픽 단일팀 출전을 성사시키는 데는 관심도 성의도 보이지 않고 회담을 파괴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北韓側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부터 단일팀을 구성할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며, 나아가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참가문제를 둘러싸고 宗主國의 눈치를 살피는 外勢追從의 事大的인 작태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北韓側이 자신의 의사를 가진 진정한 주체로서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단일팀 구성을 위한 體育人會談을 기피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南北韓間의 체육교류가 성사되어,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은 물론 2년후로 다가온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서울올림픽에서도 민족단일팀을 구성하여 우리 민족의 우애와 화합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北韓側은 하루빨리 主體意識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정당한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南北韓體育人會談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또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離散家族의 안부확인과 재회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北韓當局의 非人道主義的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혈육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離散家族들의 悲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온 세계인은 매우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北韓當局이 人道主義精神에 눈뜨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중공과 소련 등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헤어진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협조가 있기를 본인은 바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은 민족의 소명이며 그 成員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천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40년의 분단상황에 지쳐 통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聖業에 정열을 바쳐 나간다면 통일은 멀지않은 장래에 기필코 실현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諮問委員 여러분은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先進祖國을 創造하고 우리의 統一力量을 강화하는 데 견인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後 略>

## 第29回 顯忠日 追念式 追念辭

1984년 6월 6일

### 〈前 略〉

殉國先烈들의 愛國忠節을 기리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榮辱이 점철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을 가슴깊이 되새겨,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오와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힘겨운 시련과 힘찬 웅비의 기회를 동시에 안겨 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멀지 않은 앞날에 기필코 선진 조국 창조와 통일조국 성취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태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殉國先烈과 戰歿將兵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확보한 우리의 生存權과 자유를 소중히 지키면서, 각분야에서 성장과 발전을 알차게 다져 나가고 있지만, 민족적 비극과 고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분단의 아픔을 40년이 가깝도록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民族史的 正統性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北韓共產集團의 책동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냉혹한 국제환경이 빚어내고 있는 군사적·경제적 위기와 현대 물질문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으로 밀려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끈질긴 生命力과 슬기를 발휘하여 그것을 오히려 발전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던 우리 겨레에게, 오늘의 이 시점은 괴로운 위기의 年代인 동시에 새로운 國運開拓의 好機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갈수록 각박해지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도 착실한 전진을 계

속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적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즐기찬 國力伸張과 함께 국제정치와 경제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太平洋時代의 主角으로서 이 지역의 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人類文化史에 길이 빛날 발자취를 남길 민족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가슴부푼 미래는 우리의 주체적인 자각과 노력없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진조국 창조와 민족통일의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존과 자유와 평화를 확보해야만 하며, 이러한 과업은 우리에게 반석같은 단합과 피땀어린 현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先烈들이 興民族에게 빼앗긴 國權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공산침략으로부터 民族史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바쳤듯이, 지금 우리 세대는 조국의 영광과 시대적 사명완수를 위해 아낌없이 땀과 정성을 쏟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後 略〉

## 한국일보 創刊紀念 特別會見

1984년 6월 7일

〈前 略〉

질문 : 이 기회에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우리는 日常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크고 많음보다도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크고 많음이 발전을 이룩하는 첩경임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한 가운데 힘을 합치면 잘 살 수 있게 되듯이 나라도 국민이 화목하고 舍心努力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앞날을 믿고 거기에 정부를 신뢰하여 힘을 모으면 우리의 底力은 못해 낼 일이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의 성과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先進祖國은 멀지않아 우리의 힘으로 創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도 신장된 國力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할 수 있습니다.

〈後 略〉

## 「소아레스」포르투갈共和國 首相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984년 6월 15일

〈前 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民族自決原則에 입각하여 南北對話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그들이 자행한 「랭군」암살폭발사건이 말해주듯이 폭력으로 긴장을 격화시키고 그러한 한반도 적화망상을 엄폐하기 위한 僞裝과 기만술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貴國과 같은 友邦들이 北韓의 正體와 底意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성원해 주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友邦의 격려에 힘입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더욱 끈질기게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後 略〉

## 「디우프」세네갈 大統領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4년 7월 10일

〈前 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랭군」암살폭발사건이 가르쳐 주듯이 北韓共産集團은 그들이 한결같이 추구해왔던 暴力赤化路線을 조금도 누그러 뜨리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원칙에 따라 南北韓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통일을 성취함으로써 東北亞는 물론, 세계의 평화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全世界 平和愛護國들이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성원해 주고 있음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貴國이 유엔과 非同盟會議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後 略〉

## 第39周年 光復節 慶祝辭

1984년 8월 15일

친애하는 6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조국의 自主獨立을 되찾은 光復 서른 아홉들을 맞이하여 본인은 감격의 이날을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축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아울러 민족의 저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나라의 발전을 이끌면서 튼튼한 國權을 다져온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세기에 걸쳐 우리 겨레는 國權喪失의 모멸과 國土分斷의 비애를 강요당하고, 그것이 同族相殘의 戰禍를 거쳐 전쟁재발의 위협이라는 오늘의 고통에까지 이어짐으로써 시련과 비극의 긴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숭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좌절하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을 불태워 光復된 自主와 獨立을 곳곳하게 지키면서 겨레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제 5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는 民族的 正統性을 계승하고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여 불과 4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새 역사 도약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튼튼한 안정을 바탕으로 나라와 겨레의 살림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찌움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시작했으며, 自律과 開放政策을 추구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됨을 확고하게 누림과 함께 인류 최대의 祭典인 88올림픽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다가서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興隆의 民族史를 이끄는 主體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當당한 主役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합심 단결로, 바야흐로 國運과 國威의 上昇期를 맞이하고 있으며, 무한한 자신감으로 영광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民族史에 先進祖國의 새 역사를 펼치려 하고 있는 오늘의 발전은, 오늘의 우리 세대가 先烈들과 後代에 대한 시대적 책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해낸 승리의 기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국민적 업적을 토대로 하여 민족의 통일과 거래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先進祖國의 새 역사를 구현함으로써, 불행과 시련의 지난 1세기를 딛고 평화와 영광의 희망찬 1세기를 펼쳐야 할 시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光復節은 光復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해 나갈 우리 세대의 사명을 더욱 새롭게 다짐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가 도처에서 전쟁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 주변 정세 역시 秩序再編의 流動性이 커지는 가운데 北韓共産集團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명감을 한층 불태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정세에 主體的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눈을 감음으로써 國權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우리 세대의 불행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일의 세대와 역사에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加害者였던 日本을 우리 거래

를 대표하여 최초로 公式 訪問하게 된 것도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터전을 自主的인 노력과 主體的인 역량으로 개척해 나가는 民族自活意志의 실천에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光復의 참뜻은 自主와 獨立이며 그것을 확보하는 길은 드높은 民族自尊과 튼튼한 主體意識을 行動指標로 삼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自主와 主體意識의 行動指標는 무엇보다도 南北韓이 同族으로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데 있어 실천되어야 할 第1의 가치인 것입니다.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의 悲願인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光復의 참뜻인 民族主體意識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문제의 해결을 他民族의 힘에 의탁하려는 것은 분단을 스스로 원한다는 의사의 표명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光復의 의미를 스스로 외면하는 반민족적 행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을 제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南北對話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것은 민족의 문제를 民族自主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北韓側은 이러한 民族自決의 當爲를 외면하고, 올림픽대회의 민족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마저도 他民族의 올림픽 불참 의사에 추종하여 이를 유산시키는 外勢依存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동족을 폭탄으로 살상하고 또 동족인 北韓住民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民族自害 路線의 근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北韓共產集團의 所爲에 대하여 동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하루속히 반민족적 폭력범죄를 회개하고 民族自主的인 입장으로 되돌아와 南北對話에 호응하고 동족간의 교류와 협력에 나

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後 略〉

## 夏季 特別記者會見

1984년 8월 20일

〈前 略〉

질문 : 北韓共產集團은 「명군」사건 이후 위장평화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南北對話 문제를 포함하여 南北關係의 개선에 관한 각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광복 39돌이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南北韓間에는 아직까지도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단의 상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在任期間 중에 기필코 건설적인 南北對話를 열어 평화와 통일의 轉機를 마련함으로써,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내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상호 방문과 회담을 제의하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온 겨레가 번영의 大路를 함께 달려가야 하겠다는 충정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北韓側은 시대착오적인 폭력노선을 고수하면서 南北韓의 단결과 긴장, 그리고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대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南北韓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南北韓의 갈등과 대결은 분단을 영속화하고, 民族力量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南北關係는 하루 속히 지양되어야 하며,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南北韓間에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北韓側은 하루 속히 생산적인 南北對話에 호응하고 이산가족 재회와 경제교류 등 실질적인 南北交流와 協力을 통해서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질이 좋은 생활용품이나 의약품과 자동차, 그리고 기계류 등을 많이 생산해서 국내에서 쓰고 또 국제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北韓은 우리에게서 부족한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같은 자원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南北韓이 각각 제 3국과도 교역을 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동족간에 교역과 협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우기 오늘날 주변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발전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낙후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先進民族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에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先進民族으로서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一念에서 南北間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며, 北韓側이 동의한다면 北韓 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無償으로 제공할 용의도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 北韓側이 참여할 것을 나는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로스엔젤레스」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한 南北 體育會談이 北韓側의 LA올림픽 不參決定으로 유산된 바 있지만, 우리 땅에서 열리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깃발아래 뭉쳐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앞으로 그들 위한 南北 體育會談이 개최되기를 나는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後 略>

## 「히로히토」日本天皇 주최 晩餐時 答辭

1984년 9월 6일

<前 略>

우리 나라는 근세 이후만 해도 수많은 전쟁의 慘禍를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만 해도 1950년부터 3년 동안 우리는 民族相殘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입은 아픔이 남달리 크고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가 곧 信仰이며, 그것을 위한 實踐意志 또한 누구 못지않게 강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한민국 정부가 非暴力 平和主義를 국가지표의 하나로 삼고, 또 민족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평화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역사에서 단련된 평화의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 略〉

우리 大韓民國은 지금 5천년 역사의 正統을 이어받아 민족의 저력을 약동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전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一員으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後 略〉

## 「나카소네」日本首相 주최 午餐時 答辭

---

1984년 9월 7일

〈前 略〉

近世에 와서는 國權을 상실하였으며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오늘까지 40년간을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국토와 민족이 南北으로 분단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北韓共產集團의 南侵에 의한 전쟁의 慘禍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모든 피해가 누구 때문이라고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따지고만 앉아 있을 만큼 한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여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우리 세대와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정열과 노력을 남김없이 쏟고 있습니다.

〈中 略〉

우리 大韓民國은 그러한 自助와 自立精神으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 나가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의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한반도를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염원에 기초한 것입니다.

〈後 略〉

## 僑民代表 接見時 激勵辭

---

1984년 9월 7일

〈前 略〉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우리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조국은 이제 세계사의 中心舞臺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悲願인 민주와 복지,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터전을 우리의 보금자리인 한반도에 굳건히 이룩하는 희망의 그 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업은 韓民族 總參與의 시대와 더불어 성공적인 결실을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中 略〉

본인은 오늘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이 언제까지나 염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멀지않아 目前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그동안 南北對話와 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北韓側의 거부자세 때문에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大韓民國의 국력신장은 北韓側이 폭력노선과 赤化野心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화에 응해 오게 될 날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평화와 통일의 序章이 가까운 장래에 열릴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世紀가 가기 전에 待望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조국의 분단이 재일동포사회에까지 연장되어 民團과 이른바 朝總聯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마음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도 통일의 성취와 더불어 溶解될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탈겨레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통일의 그날이 오기 전에도 異域 땅에서 사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 그러한 同族愛로 포용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後 略>

## 日本 記者團과의 共同會見

---

1984년 9월 7일

<前 略>

질문 : 나라마다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만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 ...<前略>... 韓國의 평화와 안보는 東北亞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보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팽창주의 세력에 의한 이 지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은 可憐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위협적인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군사력 증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



읍니다.

韓國과 北韓間의 군사력의 균형은 지금 韓國이 다소 劣勢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北韓은 武力赤化路線을 견지하고 父子世襲體制를 강화하고 있으며, GNP의 24%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10만 특공대를 육성하는가 하면, 對南挑發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을 날이 갈수록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는 쌍방간 무기가 2차대전 당시의 수준으로서 有效半徑과 파괴력이 대수롭지 않았지만 현대무기는 有效半徑 면에서나 파괴력의 면에서 대륙과 대륙간은 물론이고 지구전체로 참화를 삼시간에 확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相互依存性이 아주 깊어졌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그 여파가 전세계로 번지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며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은 明若觀火한 일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강대국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日本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세계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에 日本 등 주변강대국과 平和愛護國들은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北韓에 의한 전쟁 도발의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

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예방하는 길은 첫째, 南北韓間에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둘째, 北韓으로 하여금 誤判을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誤判을 하게 되는 요인은 국내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 외국이 北韓과 접촉하는 등의 일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 등 우방은 北韓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西方 各國이 성급하게 北韓과의 접촉을 서둘거나 교류를 할 경우, 그것은 北韓으로 하여금 자기네의 외교적 기반이 튼튼한 것으로 誤判을 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北韓과의 접촉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後 略>

## 日本 各界指導者를 위한 리셉션時 인사말씀

1984년 9월 7일

<前 略>

우리는 동족인 北韓에 대하여 대화를 통한 통일을 제의하고 있으며, 北韓이 하루빨리 폭력주의를 청산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南北韓當局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北韓側에 제의하고, 그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의 실현을 北韓側에 촉구해 왔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有史以來 처음으로 韓國의 국가원수로서 日本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뜨거운 우호를 體感하면서 느끼는 것은, 동족끼리인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회담이 하루빨리 열려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회담이 이곳 東京에서라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 「나카소네 야스히로」日本國 總理大臣閣下간의 共同聲明

1984년 9월 8일

〈前 略〉

5.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日本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금후에도 상호 노력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南·北 兩 當事者間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총리대신은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제창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회담 개최 제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등 평화통일을 위한 韓國의 대화 노력을 지지하는 日本國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계속 냉엄한 정세하에서 韓國 정부의 방위노력이 이러한 대화노력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통령은 韓國과 北韓이 국제연합 가입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조치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총리대신은 日本國 정부로서도 긴장완화와 국제연합

의 보편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자와라」감비아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4년 9월 17일

〈前 略〉

8. 全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포함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大韓民國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자와라」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려는 大韓民國의 노력과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하면서 南北韓間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大韓民國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감비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하였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봉고」가봉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4년 9월 23일

〈前 略〉

8. 全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民族和合 民主

統一方案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大韓民國 정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봉고」대통령은 南·北韓間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大韓民國 정부의 諸般 노력과 主導的 역할에 대해 계속 지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後 略〉

## 第4316周年 開天節 慶祝辭

1984년 10월 3일

〈前 略〉

본인은 특히 北쪽의 겨레에게도 당부하고자 합니다. 원래 한 뿌리에서 나온 우리이기에, 그 뿌리를 되돌아보고 기리는데 南과 北이 따로있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오늘을 경축하는 뜻을 같이 하면서, 開天의 숭고한 理念과 민족의 一體感을 되새겨,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는 날이 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6천만 동포 여러분.

檀君聖祖께서 開國하신 뜻깊은 이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우리의 근원이 멀고 깊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를 전진하는 우리 民族史의 기틀로 삼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後孫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약속된 통일조국을 기어이 물려줌으로써, 이날이 낡고 바래져가는 神話의 날이 아니라, 겨레의 가슴과 피속에 살아 숨쉬는 역사의 날이 되도록 합시다.

〈後 略〉

## 프랑스 「뿔리띠끄 앙떼르나시오날」誌와의 會見

1984년 10월 3일

〈前 略〉

문 : 南北韓 대치현상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한반도 통일은 아직 실현가능한 현실적 목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변 : 한반도의 기본상황은 한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는 분단의 상황이며,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진정한 전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大韓民國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北韓의 전략은 南韓을 무력적화하려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北韓이 현재 世襲王朝制 構築, 심각한 경제적 난관, 어느 정도의 외교적 고립 등으로 가장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北韓은 그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韓國에서의 위기 조성 내지는 남침전쟁에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쟁만은 우선 기필코 방지해야겠다는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본인은 하루속히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즉 본인과 金日成 主席이 만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회담에서는 離散家族의 재결합 문제, 경제 및 문화 교류 문제 뿐 아니라 쌍방이 거론하는 모든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南北對話가 개최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결코 실현 불가능할 수가 없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질문 :** 獨逸方式의 해결 방법이 한반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답변 :** 물론 獨逸方式의 적용도 南北韓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토론될 수 있을 것이나, 獨逸은 19세기 후반부터 통일국가틀 형성하였지만 한민족은 7세기부터 통일국가틀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염원은 독일보다 더욱 강하고 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北韓體制의 성격과 北韓 支配者 承繼問題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답변 :** 北韓의 생활 실상은 집단생활, 감시생활, 폐쇄생활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北韓住民에게는 개인생활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는 완전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北韓住民을 특히 동정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지 않을 권리”마저 없다는 점입니다. 北韓 選舉에서 항상 100% 투표참가율에 100% 지지율이 나타나는 것은 곧 “찬성하지 않을 권리”는 물론이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마저도 박탈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北韓이 王朝世襲과 유사한 권력 移讓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본인은 공산국가틀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北韓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국가들이 이러한 北韓政權을 지지할 것인가, 지지한다면 그 지지의 명분은 무엇일 것인가, 더구나 역사는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질문 :** 「랭군」 암살폭발사건 직후에 美國과의 3者會談을 제의하였던 北韓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

**답변 :** 그러한 회의제의를 금년 들어 공개 사실이 되었으나 사실은 작년

10월 8일 중공을 통하여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北韓이 「랭군」 암살폭발사건을 자행한 것이 그보다 하루뒤인 작년 10월 9일이므로 동 회담 제의는 「랭군」만행과 함께 고안된 “同一計劃속의 두 日程”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당초 암살계획이 실패하고 北韓의 책임이 명백하게 증명됨에 따라 3者會談의 제의는 저들의 남침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者會談 제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즉 성실성이 당초부터 고려되지 않은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 :** 구체적으로 北韓은 무슨 목적으로 「랭군」 암살사건을 저질렀는지요?  
이 사건은 韓國의 대외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요?

**답변 :** 北韓은 「랭군」 암살폭발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對南 武力赤化의 기본전략을 관철시키고자 했습니다. 즉 韓國에 특수부대를 잠입시키기에 적합한 국내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남침전쟁을 감행하는 계기를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韓國으로서는 北韓이 豫測不許의 범죄행동을 하는 체제의 집단임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우리의 활동이 새삼스럽게 달라져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집착과 모든 다른 도발에 대한 대비를 더욱 강화하게 해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그 사건이 北韓의 소행임이 드러남으로써, 北韓이 목적을 위해서는 잔악한 테러행위를 포함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임을 새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北韓에 동조적이던 일부 제 3세계 국가들도 北韓을 규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後 略>



## 1985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1984년 10월 4일

〈前 略〉

다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0년대 안에 조국통일의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하고자 현재의 긴장된 南北韓 對決構造를 協力構造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초는 40년간의 단절과 대결을 극복하여 南北韓間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民族成員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에 접근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民族自決原則에 입각한 南北韓間의 직접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정신에서 제 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北韓側이 이에 동의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南北韓間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하면서 北韓同胞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無償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합리적인 제의가 北韓側의 일관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는 계속 신념을 갖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펴나갈 것입니다.

금년들어 세 차례에 걸친 南北體育會談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된 후에도 우리는 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北韓赤十字側이 우리 水災民에 대한 물자제공을 제의해 왔을 때 大韓赤十字社가 그들의 정치적 선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한 것은 南北韓 관계개선과 민족화합의 계기를 찾아 보려는 염원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南北韓關係에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南北韓이 서로 대치하여 민족전체의 역량을 헛되게 소모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南北關係를 바로 잡고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後 略〉

## 버마「아웅산」暗殺爆發事件 | 周年에 즈음한 談話文

---

1984년 10월 9일

〈前 略〉

北韓當局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의 영구화를 획책하는 반민족적 폭력노선을 청산할 것을 세계와 민족앞에 선언하고 非暴力 平和主義와 민족화합의 길에 眞意와 성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화합을 폭탄으로 깨뜨리고 인류의 평화를 폭력으로 위협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전쟁으로 파괴하려는 非理性的 好戰集團을 동족으로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는, 저들의 도발이 집요하면 할수록 평화와 통일의 굳건한 결의와 강인한 실천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後 略〉

## 「가옴」물디브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

1984년 10월 30일

〈前 略〉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작년 10월 「랭군」 암살폭파사건이 보여준 바와 같이 北韓側의 暴力路線으로 방해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신념에 따라 평화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南北韓間의 경제 및 체육교류와 離産家族의 再會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가옴」물디브共和國 大統領閣下間의 共同聲明

---

1984년 10월 31일

〈前 略〉

5. 全대통령은 한반도정세에 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南北韓間 직접대화를 통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옴」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大韓民國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물디브共和國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가음」대통령은 또한 大韓民國의 閣僚 4명을 포함한 여러 인명이 희생된 「랭군」폭파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아울러 同사건을 비난하면서 전세계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몰디브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을 위한 午餐時 激勵辭

---

1984년 11월 2일

〈前 略〉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 모두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우리는 그동안 이 땅에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안정을 이룩했으며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여 우리의 민족사에 선진조국의 새로운 章을 펼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悲願인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투철한 자신감과 확고한 토대를 쌓아올렸다는 사실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이고도 성실한 統一主導努力과 그것을 추진하고 구현할수 있는 국력의 힘찬 신장은 분단극복의 착실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주체적 역량은 北韓共產集團의 水災物資 인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불순한 저의와 각종 책동까지도 평화와 통일의 실마리로 재창조하는 슬기와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北韓側은 우리가 제의한 南北經濟會談을 비롯하여 赤十字會談과 體育會談 등 일련의 南北對話 노력을 더 이상 외면하고 거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폭력과 기만전술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체험하고 따라서 그들의 모든 眞意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위장평화공세를 펴면 필수로 굳건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통일역량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통일의 추진력을 키워 나가는 요체는 안정을 굳게 수호하고 단합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파괴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혼란과 불안 속에서는 국가적 생존조차 어렵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불과 몇년 전에도 겪은 뼈저린 역사적 체험인 것입니다.

흔히 국가적 안정은 그것이 튼튼할 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쉬운 법입니다.

諮問委員 여러분은 안정이 國力伸張의 토대이며 동시에 통일의 기반이라는 것을 더욱 투철히 인식하시고 사회의 안정과 국민단합의 中樞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까.

본인은 諮問委員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한 차원에서 활동해 오신 것을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北韓共產主義者들과의 理念對決에 대비해서 平和統一理念을 국민 속에 심화 확산시키는 데 가일층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國運上昇期를 맞고 오늘 우리가 더욱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 先進祖國의 새역사를 활짝 꽃피우고 전쟁 위협에서 해방되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된 조국건설의 결의를 우리 모두 더욱 굳게 다짐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諮問委員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後 略〉

## 스위스 「랭팍뜨」誌와의 會見

1984년 11월 6일

〈前 略〉

질문 : 西方에서는 南北韓間의 새로운 전쟁위험에 대하여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각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 : 지금까지 北韓이 취해온 對南政策은 대화보다는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은 한반도 분단 현상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취해온 폭력노선의 고수와 이를 위한 과도한 軍備增強과 끊임없는 대남도발에서 기인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北韓은 金日成 執權이후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대내적으로 權力承繼 問題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파탄 직전의 경제불안 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랭군」 암살폭발사건 이후 그들에게 쏟아진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서 탈피코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곤경 탈피를 위한 北韓의 정책은 표면적으로 僞裝平和 攻勢의 양상을 띠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暴力戰爭路線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南北韓間 경계력 격차의 심화와 大韓民國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

른 초조감 속에서 그러한 격차가 만회할 수 없는 절대적 수준에 이르기 전에 그 조류를 바꾸어 보려고 對南 武力挑發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西方側の 그러한 우려는 충분한 근거와 일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누차에 걸쳐 南北韓 最高責任者會談 開催를 제의하였으며, 얼마전 본인의 日本國 방문시에도 그같은 제의를 재천명하여 그 제의가 아직도 유효함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北韓이 이러한 南北韓 대화에 호응하지 않은 것은 폭력적화 노선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지않아 南北韓間의 경제력 격차가 충분히 벌어지고 군사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들의 대남무력도발 능력은 한계에 부딪치리라 예상되며, 그리하여 武力赤化野慾을 포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後 略〉





1985년



## 新年辭

1985년 1월 1일

〈前 略〉

본인은 北韓同胞들에게 우리 겨레의 심심한 위로와 축복의 인사를 전하면서 올해에는 만남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될 것을 충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水災를 人和로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뻗어나는 國力을 토대로 하여 南北對話를 주도하고 국제무대에서 自尊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보람찬 한 해를 가꾸어 냈습니다.

올해는 나라 안팎의 변화와 도전의 물결이 거세어지는 轉換의 年代로서, 평화와 정의 그리고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 데 있어 우리 겨레와 국민 모두의 非常한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後 略〉

## 85年度 國政演說

1985년 1월 9일

〈前 略〉

올해로서 만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비단 이땅의 불행일 뿐 아니라, 세계사의 한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今世紀의 비극이 새로운 世紀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韓民族의 偉業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

은, 지난 40년간 지속해 온 대결의 상황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體制對決과 軍事的 對峙 속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6천만 겨레를 파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南北韓은 더 이상 서로 담을 쌓고 대립과 反目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를 열고 相扶相助하며 화합하는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南北韓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의 기초 위에서 民族一體感을 가꾸어 나간다면,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南北對決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있는 일대 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982년 1월 22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내외에 천명하고 온 겨레가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한 것도 民族自害的이며 비정상적인 南北關係를 청산하자는데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南北韓間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北韓側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南北對話는 對決清算의 토대 위에 평화와 통일을 건설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民族史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자세가 비록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南北對話는 어떤 것이든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水災物資를 인수하고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 그리고 體育會談을 제의한데 이어 北韓이 이에 호응해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회담이 진전되어 南北韓間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礎石이 되고 우리 겨레의 自尊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昨今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고 있는 정세변화는 평화와 통일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 南北韓의 主體的인 노력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과 金日成 主席과의 회담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기를 北韓側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 3국 지도자와도 수시로 빈번한 상호방문을 실현하고 있는 터에 南北韓當局의 最高責任者가 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南北韓間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平壤에 連絡代表部를 常設的으로 설치할 것을 본인은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와 통일의 새장을 80년대 안에 기필코 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인내를 가지고 北韓을 대화로 포용해 나갈 것이며, 北韓側이 이러한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後 略〉

## 第66周年「3·1」節 紀念辭

1985년 3월 1일

〈前 略〉

民族의 自主 自立을 이룩하고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統一祖國의 터전을가

꾸어 子子孫孫의 永久完全한 행복을 확보하는 한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공헌해야 한다고 밝힌 「3·1」宣言은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수해야 할 民族的 使命인 것입니다.

민주와 정의, 그리고 福祉의 先進祖國을 앞당겨 이룩하여 새로운 세기에는 統一된 高度先進國으로 발돋움하는 것이야말로 「3·1」精神을 온전하게 具現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中 略〉

昨今 流動的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周邊情勢에 대처하여 민족의 生存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自主精神을 투철하게 가꾸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民族聖業인 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 남에게 의지하려는 事大依他의 자세는 단연코 배격되어야 하며, 그것은 「3·1」의 自主精神에 비추어서도 결코 온당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民族自決과 平和主義에 입각한 對話와 統一을 이룩함으로써 「3·1」運動의 歴史的 課業을 完遂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愛國이라는 命題를 두고 온 겨레가 주인으로서 단합했던 「3·1」運動의 정신을 오늘에 더욱 가다듬어 다 함께 先進發展과 統一成就의 民族的 課業에 힘찬 전진을 加速化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적인 합심과 同參을 바라는 바입니다.

## 亞·美洲地域 公館長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1985년 3월 18일

〈前 略〉

지금 이 시간에도 休戰線을 사이에 둔 南北間의 對峙狀態와 韓半島를 둘러싸고 激變하고 있는 周邊情勢는 우리에게 한 순간의 放心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中 略〉

우리는 北韓이 하루속히 世界潮流에 눈을 뜨고 對話의 廣場으로 나오도록 國際的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平和와 統一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도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後 略〉

## 歐洲·阿·中東地域 公館長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1985년 4월 4일

〈前 略〉

더우기 急變하는 韓半島周邊情勢속에서 北韓의 戰爭挑發 위험성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放心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中 略〉

이땅에 자유와 민주, 그리고 번영의 보금자리를 알차게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安保外交와 經濟外交를 加一層 強化하는 한편으로, 平和統一 外交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後 略〉

## 「루버스」和蘭王國首相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4월 15일

### 〈前 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南北韓 直接對話를 통해 韓半島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統一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40년에 걸친 緊張과 不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땅에서 대립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합과 共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누차에 걸쳐 北韓側의 진지한 자세를 촉구했지만, 그들의 赤化路線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北韓側이 진지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南北對話가 알찬 結實을 거두게 되기를 바라는 본인의 所望을 새롭게 하면서, 그동안 貴國政府가 각종 國際舞臺에서 우리의 노력을 적극 聲援해준데 대해 깊은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 〈後 略〉

## 「지아 울 하크」파키스탄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5월 7일

### 〈前 略〉

우리 大韓民國은 조국의 발전과 世界平和와 번영을 위하여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모든 국가와의 關係改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第3世界の 일원으로서 開途國과의 互惠的인 協力增進에 外交의 力點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포부와 관련하여 韓半島에는 아직도 평화가 定着되지 못하고 있어 國家發展과 平和具現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전쟁의 慘禍를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로서 평화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절실하며,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이 窮極적으로 평화적인 祖國統一의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寄與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아직은 완전한 結實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北韓이 우리 民族의 현실과 장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武力統一의 妄想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不斷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모아마드 지아 울 하크」파키스탄回教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85년 5월 10일

〈前 略〉

14. 全斗煥 大統領은 南·北韓간의 對話를 통한 統一을 위하여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指向하는 大韓民國 政府의 노력과 政策을 설명하였다.

15. 「지아 울 하크」大統領은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再確認된 韓國民의 共同 念願인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에 대한 파키스탄의 지지를 재다짐하였다.

〈後 略〉

## 「몽헤」 코스타리카 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5월 20일

〈前 略〉

우리는 國土分斷과 同族相殘의 비극을 경험한 민족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戰爭再發을 방지하고 恒久的인 平和를 定着시켜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實踐的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표면에 나타내는 자세가 어떠하든 最近 軍事分界線에 戰鬪兵力을 前進 配置한 것을 비롯하여 先制攻擊 能力을 계속 強化함으로써 武力으로 韓半島를 赤化하려는 野慾을 固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生死를 건 對峙狀態가 계속되고 있는 韓半島에서 緊張을 解消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 길은 무엇보다도 南北韓이 진지한 對話를 통해 相互信賴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南北韓 當局의 最高責任者가 서로 만나 모든 문제를 討議하고 또 南北韓 社會를 서로 개방할 것을 累次에 걸쳐 提議해 왔습니다.

우리는 北韓側이 武力路線을 버리고 우리의 건설적인 提議에 호응할<sup>1</sup>때까지 인내와 성의를 다 할 것입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退任諮問委員에게 보내는 親書

1985년 5월 20일

〈前 略〉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올해로 祖國分斷 40年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 韓半島에서는 아직도 緊張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同族間 反目과 대결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고 祖國統一의 聖業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고한 信念으로 民族和合 民主統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主導的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인이 世界를 상대로 우리의 強烈한 平和意志를 宣揚하고 우리의 統一方案에 대한 支持基盤을 擴散시켜온 것도 하루속히 民族分斷의 歷史를 청산하고 이 땅에 統一과 繁榮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데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은 赤化統一의 야욕을 조금도 누그러뜨림이 없이 폭력과 파괴의 노선으로 분열과 對決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平和와 繁榮의 前提가 安定과 安保의 確保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귀하가 統一推進의 영원한 同志로서 統一이 우리 民族의 至上課業이라는 召命意識을 갖고 安定과 和合을 持續적으로 다져 나간다면 平和統一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後 略〉

##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루이스 알베르도 몽헤」코스타리카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1985년 5월 22일

〈前 略〉

4. 兩國 大統領은 現 國際情勢, 특히 中美 및 東北亞細亞地域情勢에 대하

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兩 國家元首는 自由·人權·國民의 自決權·主權·領土保全·他國 內政 不干涉原則 및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에 대한 尊重이 世界平和와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緊要하며, 또한 모든 國際紛爭은 성실하고 平和的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中 略〉

9. 全斗煥 大統領은 「몽헤」大統領에게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大韓民國 政府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南·北韓間의 直接對話만이 緊張을 緩和하고, 나아가서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方案이라는 점을 強調하였다. 「몽헤」大統領은 大韓民國 政府의 이러한 主導的인 노력에 敬意를 표하고, 南北韓最高當局者會談 및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대한 全幅的인 支持를 表明하였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諮問委員을 위한 晚餐時 激勵말씀

1985년 5월 29일

〈前 略〉

본인은 특히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가 이제 뜻깊은 發足 4周年을 맞이하게 됨을 慶賀하면서, 다시한번 6千萬 은겨레의 統一念願과 意志를 結集하고 平和와 統一을 向한 발걸음을 加速化해 나갈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엄숙하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中 略〉

내년으로 다가온 86 아시아競技大會를 비롯해서 人類和合의 祭典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民族의 氣像은 더욱 드높게 불타고 있으며, 民族雄

飛의 기회를 民族의 和合과 統一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슬기와 노력을 아낌없이 發揮해야 하겠습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올해로 만 40年이 되는 조국의 분단은 민족의 力量을 낭비하고 民族의 安寧을 威脅하는 試鍊과 苦痛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同族間의 反目과 對決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民族의 恒久的인 平和와 繁榮을 약속하는 對話와 協力の 시대를 여는 일이야말로, 우리 世代의 제 1의 召命인 것입니다.

戰爭과 暴力의 挑戰을 平和와 對話의 意志로 극복해온 우리는 이제 統一의 大義앞에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自信과 勇氣를 保有하게 되었습니다.

南北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對話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自信과 勇氣가 큰 原動力이 되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南北韓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對話와 協力の 새 出發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對坐가 중도에 무산되는 일이없도록 和解와 信賴의 基礎를 마련하고, 그 기초위에서 民族一體感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40年동안 겪어야 했던 不幸한 南北對決의 시대를 民族和合의 시대로 轉換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統一의 실천을 向한 民族和合의 大道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精進해 나갈때, 平和와 統一은 우리의 主體的努力에 의해서 반드시 구현되고야 말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실마리도 平和와 統一의 觸媒劑로 이끌겠다는 끈질긴 집념아래, 온갖 노력을 다해온 우리로서는, 오직 忍耐와 誠實로써 對話와 協力の 꽃을 피우고 그 結實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後 略〉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第3次 全體會議 開會辭

1985년 6월 5일

親愛하는 平和統一政策諮問委員 여러분과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6千萬 同胞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응수음치는 祖國統一의 熱望과 온 겨레의 드높은 自信心을 모아 聖業完遂의 발걸음에 拍車를 가하기 위해서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인은 먼저 겨레의 統一意志를 높이 받들어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가 發足된지 4年동안, 統一을 향한 확고한 전진을 先導해 왔음을 여러분과 함께 자부하면서, 前進의 旗手로서 땀흘려온 諮問委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致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統一의 신념을 실천하여 안정과 성장 속에서 國力伸張을 이룩한 것은 統一의 힘을 크게 強化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制限的이고, 또 그 眞意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北韓이 直接對話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國力伸張과 國民的 自信心을 바탕으로 우리가 主導的인 對話努力을 기울여 온데 힘입은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事實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成果를 발판으로 分斷과 分裂의 今世紀를 清算하고 統一과 和合의 新世紀를 건설하는 데 邁進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온 겨레의 간절한 念願에 더욱 힘껏 副應하여 祖國統一을 앞당기는 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複雜한 內外 環境 속에서 2千年代를 위한 民族的 豫備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은 이 중대한 歷史의 길목에서 南과 北이 戰爭과 對決로 얼룩진 分斷의 40年史를 하루 빨리 청산하고 이 疆土에 平和와 統一의 터전을 다지는 것이 가장 시급한 課題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南北間의 對決과 不信이 解消되지 않고 더욱 深化된다면 그것은 民族의 力量을 浪費하고 苦痛을 加重시키는 물론, 戰爭과 破壞를 초래하여 終局的으로는 民族自滅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극히 危險하고 非正常的인 狀況을 극복하고 南과 北의 겨레가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된 對話를 통해서 서로 信賴와 和合을 다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民族自決의 原則에 따른 南과 北의 對話만이 平和的인 統一을 이룩해 나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일념으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의 相互訪問과 會談을 北韓에 대하여 提議했던 것입니다.

南北韓間의 全般的인 問題를 근본적으로 協議 解決하기 위한 이러한 만남을 마다할 이유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良識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

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南北韓間에 가로놓인 모든 懸案問題를 총괄해서 다루고, 그리고 보다 책임있게 解決해 나가기 위하여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조속히 實現되기를 다시 한번 促求하는 바입니다.

이 會談이 올해 안에 실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祖國光復 40周年을 맞이하여 우리 民族史에 平和와 統一의 新紀元을 여는 뜻깊은 한 해를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本人은 國際社會에서 南과 北이 民族의 自尊을 드높이고 民族의 同質性과 相互信賴를 回復하기 위한 생산적인 努力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해서는 먼저 民族自害的인 相互誹謗 行爲를 즉각 中止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86年の 아시안게임과 88年の 서울올림픽에 北韓側이 參加할 것을 희망하며, 參加人員의 身邊安全과 모든 편의를 우리측이 완벽하게 保障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兩大 祭典에 南北韓이 單一팀을 構成하여 참가한다면 지난해 LA 올림픽 때보다도 월등한 성적으로 우리 民族의 우수한 才質과 위대한 底力을 全世界人에게 과시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單一팀을 構成하자면 選手選拔과 訓練 등에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그 준비를 서둘러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北韓側은 우리가 提議하고 있는 南北韓體育會談에 조속히 호응함으로써 單一팀 構成과 體育交流의 실현에 誠意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北韓側은 지금 의견 상으로나마 南北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對話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이 會談이 韓半島의 戰爭危險을 해소하고 南北韓關係를 실질적으로 改善하여 平和統一로 다가서는 하나의 礎石이 될 수 있도록 眞情을 가지고 對話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기본적으로 南北韓 當事者間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主體的인 노력을 기울여 解決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解決努力은 多極化時代로 변천하고 있는 國際情勢의 추이를 直視하면서, 國際環境을 統一大業 成就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차원으로 展開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判斷아래 周邊國家들이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에 건설적으로 寄與하도록 積極 誘導함과 아울러, 第3世界 國家와도 긴밀한 협력을 持續적으로 強化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본인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共產國 國家에 대해서도 相互主義의 原則아래 友好協力關係를 樹立하고 發展시키는 門戶開放政策을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펴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최근 北韓은 그들 내부의 곤경을 打開하기 위하여 西方國家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北韓社會를 兩의 同胞에게는 물론 온 世界人에게 솔직하게 開放하여 閉鎖社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

고 있는 行動의 陰謀性과 僞裝性을 불식시켜 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諮問委員 여러분 !

今世紀에 빚어진 分斷의 悲劇은 적어도 새世紀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民族的 念願에 비추어 볼 때, 2千年代까지 앞으로 남은 15年間은 우리 民族史에 있어 실로 중대한 歷史的인 時期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處한 狀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國民的 團結과 나라의 安保를 더욱 굳건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安定과 國民的 團結을 깨뜨리는 행위는 바로 國力의 分散으로 이어져 統一과 繁榮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各界各層을 代表하는 諮問委員 여러분은 그동안의 자랑스러운 業績을 土臺로, 國民和合을 南과 北의 民族和合으로 승화시키고 나라의 安定을 튼튼하게 定着시키며 겨레의 힘을 國力伸張의 한 곳으로 이끄는 데 非常한 分發과 獻身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統一의 主體로서 그리고 先進의 役軍으로서 노력한다면, 멀지않아 統一의 새 歷史는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임을 본인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世代에 榮光된 統一祖國을 기필코 건설할 것을 다함께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海外諮問委員을 위한 리셉션時 激勵말씀

1985년 6월 5일

〈 前 略 〉

우리는 第5共和國이 출범한지 4年동안 국민모두가 創造와 發展의 굳건

한 主體로서 참으로 많은 땀을 흘려왔으며, 이제 안정과 성장속에서 統一祖國과 先進祖國의 밝은 앞날을 期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은, 統一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國力伸張의 획기적인 계기로서, 우리는 戰爭이 없는가운데 앞으로 수년동안 전진을 계속하면, 반드시 先進과 統一의 새로운 民族史를 열게 될 것입니다.

### 〈 中 略 〉

조국의 分斷이 올해로 만 40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同族間의 反目과 對決의 시대는 더이상 持續되어서는 안되며, 또 그것은 우리 민족의 自尊과 統一意志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땅의 아픔과 不幸의 歷史를 清算하려는 一念에서 그동안 最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平和와 繁榮을 약속하는 길은 南北間의 對話와 協力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南北韓 經濟會談과 赤十字會談이 열려, 南北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對話의 자리를 갖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를 契機로 對話와 協力の 성공적인 出發이 이루어지기를 本人은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對話의 자리가 內實을 가져오고 南北對話를 平和와 統一로 이끌게 하는 가장 根本적인 土臺는, 우리의 主體的인 力量을 더욱 튼튼하게 確保하고 強化하는데 있습니다.

南北對話를 실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인한 忍耐와 誠實의 자세와 아울러, 여하한 對話拒否와 對決策動도 無用하게 하는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오랜 경험에서 얻은 뼈저린

敎訓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周邊情勢의 흐름까지도 平和와 統一에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주체적인 力量을 키우고 또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世紀가 가기전에 對話와 協力の 時代를 열고 平和統一의 民族的 神話를 기필코 창조해 내기 위해서, 나라안과 밖에 있는 온 겨레가 의지와 슬기를 모아 統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主體的인 力量을 倍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後 略〉

## 「엘샤드」방글라데시大統領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6월 17일

〈前 略〉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大韓民國 또한 自然의 혜택이 그리 크지 못한 데다가 지난 50년대에는 참혹한 同族相殘의 戰爭을 겪고 그 잣더미 위에서 國家建設에 나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韓半島에 戰爭이 再發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그러한 悲劇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信念을 가지고 있습니다.

韓半島의 戰爭은 곧바로 世界大戰으로 飛火된다는 點에서 이 지역에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은 世界の 平和와 安全에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大韓民國 政府는 이 지역은 물론 世界人의 平和와 安寧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北韓側은 겉으로는 平和를 내세우면서도 끈질기게 武力赤化 路線을 強化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방글라데시」가 그동안 유엔과 非同盟會議과 같은 國際舞臺에서 우리의 立場을 이해하고 성원해 준데 대해 謝意를 表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支持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후세인 무하마드 엘샤드」 방글라데시 人民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5년 6월 19일

〈前 略〉

17. 全斗煥 大統領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이 亞細亞 및 世界의 平和와 安全에 緊要함을 강조하면서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위한 大韓民國 政府의 努力과 政策을 설명하였다. 「엘샤드」 大統領은 韓國問題는 7·4 南北同共聲明에서 南北韓이 合意한 바와같이 南北韓間的 對話를 通해 平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방글라데시 政府의 立場을 再確認하였다.
18. 全斗煥 大統領은 방글라데시 政府가 非同盟會議 및 其他 國際舞臺에서 大韓民國의 立場을 이해하고 支持하여 준 데 대해 謝意를 表明하였다. 「엘샤드」 大統領은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의 實現에 도움이 될 유리한 環境 造成을 위하여 방글라데시 政府가 非

同盟會議를 포함한 國際舞臺에서 건설적인 役割을 遂行할 것임을 闡明하였다.

〈後 略〉

## 「비에이라」 기네비싸오共和國 大統領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6월 26일

〈後 略〉

올해로 分斷 40 年을 맞이하는 이곳 韓半島에는 아직도 緊張과 不安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지역의 平和가 곧 世界平和에 直結되고 있다는 確固한 認識아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하여 부단한 努力을 기울여 왔읍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大韓民國 政府는 民族自決의 원칙에 따라 직접 當事者間의 對話를 통해 平和的이고도 民主的인 方法으로 韓半島問題를 解決하자는 입장인 것입니다.

본인은 貴國을 비롯한 모든 平和愛護國들이 우리의 이러한 입장과 노력을 聲援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謝意를 表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理解와 聲援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後 略〉

全斗煥 大韓民國 大統領閣下와  
「조앙 베르나르도 비에이라」 기네비싸오共和國  
大統領閣下간의 共同聲明

---

1985년 6월 26일

〈前 略〉

8. 全 大統領은 비에이라 大統領에게 韓半島 情勢를 상세히 說明하면서 大韓民國 政府가 全 大統領이 提案한 民族和合 民主統一 實現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強調하였다.

한편, 비에이라 大統領은 南北韓間 直接對話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은 물론, 平和的인 方法으로 韓半島를 統一하려는 大韓民國의 主導的인 노력에 敬意를 표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南北韓의 유엔 가입이 同 취지를 위한 積極적인 進一歩가 될 것이라는 確信을 表明하였다.

〈後 略〉

第40周年 光復節 慶祝辭

---

1985년 8월 15일

親愛하는 國內外 6千萬同胞 여러분

오늘 우리는 祖國統一의 新紀元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드높은 열정과 힘찬 헌신속에서 뜻깊은 光復 40周年을 맞이하였습니다.

40年前 오늘 우리 온 겨레가 감격과 환희에 겨워 한마음으로 확인하고 다짐했던 光復의 진정한 뜻은, 이 강토위에 統一과 繁榮과 自主와 獨立의 새 祖國을 建設하여, 半萬年동안 면면히 이어온 民族史의 正統性을 튼튼하

게 발전시키고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의 大義에 적극 공헌하는 韓民族의 영광스러운 召命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光復의 참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國土分斷이라는 멍에속에서도 그날의 감격과 정열을 바쳐 온갖 試鍊을 克服하고 建設의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北韓共產集團의 武力南侵이 가져온 폐허위에 오늘 우리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自由와 民主와 繁榮의 확고한 터전을 이룩하였습니다.

第5共和國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民族의 위대한 底力은 더욱 힘차게 발양되어 굳건한 安定과 成長속에서 先進跳躍의 기틀을 다지고, 南北對話를 主導함은 물론 人類最大의 祭典인 88올림픽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세계의 進運에 貢獻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國運과 國力이 힘차게 약동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은 自主와 獨立, 그리고 統一과 繁榮이라는 光復의 召命이 바야흐로 그 탐스러운 꽃망울을 맺는 待望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동안 온갖 試鍊과 挑戰을 불굴의 意志와 勇氣로써 극복하고 보람과 성과를 이룩해온 국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敬意를 보내면서,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韓民族의 世紀를 향한 위대한 前進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同胞 여러분

光復後 강산이 네번이나 변할 기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南北分斷이라는 슬픈 현실입니다.

1950年 6月 25日 北韓共產集團의 남침으로 우리는 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으며, 한 강토와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야 할 우리는 이 순간에도 軍事的 對峙狀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南北分斷이야말로 민족의 力量을 浪費하고 민족의 安寧을 위협하는 온갖 試鍊과 苦痛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生存과 繁榮을 확고히 保障하고 世界史의 進運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民族分斷의 歷史에 終止符를 찍고 信賴와 和合의 新紀元을 열어 平和와 統一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主導的인 노력으로 지금 南北韓間에는 離散家族問題와 經濟分野에 관하여 그리고 兩側 國會間에 對話가 進行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對話가 南北韓關係에 새로운 轉機를 여는 뜻깊은 始發이 되도록 內實있게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平和와 統一을 위한 南北韓關係의 확고한 基礎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南北이 서로 상대방을 侵犯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實現을 위한 구체적인 措置를 취하는 동시에 交流와 協力の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相互不可侵의 명제는 6千萬 우리 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課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一貫해서 그것을 追求해 왔으며, 우리의 決意와 實踐努力은 오랜 세월에 걸친 행동으로 證明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憲法은 平和的 統一을 그 前文에 명시하고 모든 侵略的 戰爭을 부인함으로써 不可侵을 國家最高意思로 민족과 세계에 宣稱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지난 1982년에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의 實踐措置로서 「南  
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할 것을 提議하고, 그 내용으로서  
모든 형태의 武力 및 暴力使用 禁止와 紛爭의 平和的인 解決과 상대방의 內  
部問題 不干涉을 포함한 7個項을 提示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南北韓의 두 당국간에 相互不可侵 問題를 비롯해서 南北韓의  
정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諸般事項을 하루라도 빨리 討議하여 해결하  
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立場인 것입니다.

北韓側은 近者에 南北間에 不可侵을 宣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解  
決될 수 있는 것처럼 主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南北間은 물론, 어떤 當事者 사이에  
도 合意文書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合  
意事項을 尊重하여 이를 遵守하고 實踐하려는 意志와 行動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北韓이 지난 40년간에 즐기치게 추구해온 赤化革命戰略을 포기하는 자세  
를 보이지 않고 對南赤化統一이라는 基本路線을 계속 固守할 경우, 그들이  
말하는 不可侵宣言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僞裝口號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世界史에서 보는 바와 같이 獨·蘇 不可侵條約을 비롯한 수  
많은 不可侵條約이 그 一方의 파기로 休紙化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2년동안 北韓側이 休戰協定을 얼마나 난폭하게 위반했으며,  
그로 인해 北韓側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不信이 얼마나 고조되  
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實踐意志와 履行努力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北韓側이 진정으로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어떤 協定이나 宣言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措置가 隨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南北이 불필요한 外交的인 競争과 對決을 止揚하고 國際舞臺에서 相互協力할 것을 밝히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相互不可侵의 實踐意志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南北當事者間의 合意가 实效性 있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韓半島와 利害關係가 밀접한 周邊國家들이 이 지역의 平和와 安定을 위한 公同의 關心과 理解를 開發시킴으로써 그들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建設적으로 寄與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北韓側이 이러한 南北韓關係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誠實한 姿勢를 보이고, 현재 진행중인 南北會談의 內實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協力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81년에 提議한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본인은 지금도 所望하고 있으며, 이것이 實現되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光復 40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南北關係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으로써, 分斷과 分裂의 今世紀를 清算하고 統一과 和合의 새 世紀를 建設하는 굳건한 礎石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온 겨레와 더불어 소망하는 바입니다.

〈中 略〉

民主와 繁榮의 統一國家를 이룩해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愛國先烈에 대한 報答이며 後代에 대한 우리 世代의 榮光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苦難과 逆境이 닥친다 하더라도 30여년의 어두웠던 지난날을 克服해낸 光復의 氣魄과 精神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今世紀안에 先進과 統一의 새 歷史를 반드시 創造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光復 40周年이야말로 그러한 前進를 향한 우리 모두의 힘찬 出發을 다짐하는 轉機가 될 것을 期待하면서, 國民 여러분의 倍前의 努力을 當付하는 바입니다.

## 오스트리아 「보헨 프레세」紙의 書面質疑에 대한 答弁

1985년 9월 24일

問 1 : 韓國은 지금부터 정확히 40年前 解放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國土가 分斷된 狀態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민에게 失望的인 狀況입니까?

答 : 우리 국민은 4千년의 悠久한 歷史를 가진 單一民族으로서 日本의 支配하에 있던 동안에도 자신의 民族的, 文化的 自尊을 잃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잃었을 당시에 간직했던 희망이 짧은 期間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部門에 걸쳐 南韓에서는 광범위하게 實現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韓國의 獨立과 國威는 이제 國際社會에서 확고한 現實로 되었습니다.

問 2 : 閣下께서는 한국의 目標가 이제 완전히 實現되었다고 보십니까?

答 : 우리의 希望을 實現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國土와 民族의 分斷이라는 悲劇으로 우리 韓民族 全體가 민족의 긴 장래를 위한 노력에 同參할 수 없는 現實은 극히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民族的 意志에 비추어 祖國統一의 날이 머지 않아 찾아 오리라는 期待를 본인은 확고히 하고 있으며 本人과 韓國政府는 그러한 기대아래 즐기찬 努力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中 略 >

問 4 : 지난 몇달사이 여러 次元의 南北韓 對話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對話가 최소한 人道主義 問題와 經濟分野에서 肯定的 結實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각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答 : 본인과 大韓民國政府는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으로 平和를 定着시키고 나라를 統一하려는 민족의 念願에 따라 實現可能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우리의 努力은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6·25 南侵戰爭의 뼈저린 경험을 가진 우리로서 그와 같은 戰爭의 再發을 막아야겠다는 신념과 갈망이 어떠한지라는 것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北僞의 梁軍테러蠻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對話를 꾸준히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問5 : 그러면 南北對話에 어떤 成果가 있었습니까?

答 : 우리의 노력으로 分斷 40年만에 처음으로 民間訪問團이 南北을 往來하는 길은 열었습니다마는 北韓側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한, 人道的인 問題나 經濟問題에 그치지 않고 南北關係 全般에 걸쳐 새로운 차원의 전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問6 : 政治的 統一이나 최소한 政治的 和解의 可能性은 있다고 보십니까?

答 :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의 對話努力은 特定問題의 解決方案을 模索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南北韓間의 政治的 和解는 물론 궁극적으로 祖國을 統一하기 위한 過程의 일부로서 경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分斷이 40年이나 지속되고 있는 現狀況에서 南北間에는 信賴와 和合의 基盤을 造成하는 것이 艱難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緊張緩和와 戰爭再發防止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韓民族 전체의 意思에 基礎한 것으로서 周邊 強大國들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건설적으로 寄與하여 주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問7 : 北韓은 이러한 協商에 美國도 包含시킬 것을 要求해 왔습니다.

이러한 受諾할 수 없는 要求는 平壤이 生産的인 高位會談에는 眞正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答 : 韓半島 問題가 直接 當事者인 南北韓間의 對話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第三者가 보아도 명백한 것으로서 北韓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우리의 立場을 理解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과 같은 차원높고 實効性 있는 對話가 실현된다면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政治的 和解를 도모하는 결정적 契機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後 略>

## 第37周年 國軍의 날 談話

1985년 10월 1일

<前 略>

우리는 최근 制限된 範圍안에서나마 感激的으로 이루어진 南北韓間의 交流를 통해서도, 北韓社會의 일그러진 모습과 北韓同胞들의 눈물겨운 生活相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年의 分斷으로 南北韓間의 異質化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實感하면서, 統一意志를 다시 한번 가슴깊이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와 對話를 나누게 된 經緯를 면밀히 分析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한가닥 이어진 이 실마리가 南北韓間의 不信을 解消하고 나아가 平和와 統一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또 그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든 우리와의 對話를 繼續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環境을 계속 造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後 略>

## 第4317周年 開天節 慶祝辭

1985년 10월 3일

### 〈前 略〉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悠久한 民族史를 영위해 온 先祖들의 값진 遺産과 正統性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世界와 未來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跳躍의 時代에서 弘益人間의 開國理念은, 오늘의 우리에게 民主와 繁榮과 統一의 崇高한 目標를 더욱 자랑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널리 人間世界를 이롭게 한다는 이 理念은, 시초부터 인간을 最高價値로 宣言하고 있으며, 人類共榮의 理想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땅에 민주주의를 가꾸면서 국민의 福利와 人類의 共同繁榮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開國理念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한 것으로서 우리 民族史의 正統性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建國理念이 품고 있는 正統性을 지키고 오늘에 구현하는 것은, 바로 先進祖國의 創造와 平和統一의 成就로 다가오는 새 世紀를 韓民族의 世紀로 장식하는 오늘의 國家目標에 의하여 確固하게 이룩될 것으로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先進과 統一祖國의 具現課題는 開國의 理念을 오늘에 꽃피우는 길이며, 오늘의 世代가 民族과 民族史에 바쳐야 할 時代的 責務임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곳은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가깝고도 도달이 가능



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과 슬기로 헤쳐나가야 할 試練의 波高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國際環境은 不安定性으로 얼룩져 있으며 自國利益 中心의 거센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 극성스럽게 우리를 壓迫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北韓의 動向 또한 南北對話의 部分的인 進行과 더불어 安保에 대한 우리의 보다 굳건한 態勢確立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팎의 여러 挑戰을 슬기롭게 헤치고 우리 모두의 포부를 實現하는 課題에 겨레의 온힘을 모으는 要諦는 오늘 이 開天節이 일러주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 모두가 「한 뿌리」로서 融和 團結하는데 있다고 本人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과 같은 理念 아래서 같은 運命의 배를 타고 있는 우리끼리 團結하는 것은, 創意와 底力의 民族品性을 결집시켜 民族力量을 極大化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 南北離散家族의 相逢은 우리에게 민족을 부정하고 民族愛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名分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민족, 같은 인간으로서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치는 것은,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社會와 世界關係로까지 弘益人間의 開國理念을 넓게 전파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民族愛와 人間愛의 실천은 반드시 전체적이고도 획일적인 計劃表에 依해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生活化됨으로써 더욱 값진 結實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後 略>

## '85 IBRD·IMF總會 開會式 歡迎辭

---

1985년 10월 8일

### 〈前 略〉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經濟開發 推進過程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國土分斷에 따른 南北韓間의 軍事的 對峙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韓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하여 理念과 體制를 초월하여 南北韓間의 相互交流를 추진하는 등 南北對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 進行되고 있는 南北韓間의 赤十字會談과 經濟會談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頂上會談과 體育會談 등 실현성있는 南北間의 교류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이를 계속 進行해 나갈 것으로써 韓半島의 平和는 물론 世界平和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입니다.

### 〈後 略〉

## 1986年度 豫算案提出에 즈음한 施政演說

---

1985년 10월 12일

### 〈前 略〉

政府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努力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최근 故鄉訪問團의 相互交換은 비록 그 規模와 訪問地域이 매우 制限되어 있으나, 이를 계기로 南北間에 代表團의 往來만이 아니라 民間次元의

人的交流도 아울러 實現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分斷 40年만에 최초로 이루어진 人道的 交流로서 平和와 統一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進一步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故鄉訪問團의 交換을 통하여 40年間の 斷絶에서 벗어난 상호간의 異質化가 그토록 뿌리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不信과 誤解의 障壁이 되는 그러한 異質化의 深化現象은 北韓의 閉鎖性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北韓社會의 조속한 開放이 매우 절실하게 要請된다고 하겠습니다.

平和的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南北韓關係의 확고한 基礎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基礎는 곧 人的·物的 交流를 통한 協力關係의 增進으로 상호간의 信賴를 構築해 나가는 동시에, 南北이 서로 상대방을 侵犯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具體적인 措置를 취해 나감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본인은 이미 모든 형태의 武力使用禁止와 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促求해 왔고 지난번 祖國 光復 40周年 紀念式에서 「不可侵의 命題는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至上의 課業」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누차에 걸쳐 제의한 바 있는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會談이 실현된다면 南北間의 交流와 協力關係를 活性化하고, 相互不可侵의 기틀을 마련하여 韓半島에서 緊張을 완화시키고 戰爭再發을 방지하며 平和的인 統一

을 성취할 수 있는 새 紀元을 보다 빨리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앞으로도 모든 誠意와 忍耐를 가지고 계속 南北關係를 改善하여, 對話와 交流, 그리고 協力の 새 시대를 열어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後 略〉

## 「슈뤼터」덴마크首相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10월 16일

〈前 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韓半島에는 40년에 걸친 南北分斷과 軍事的인 對峙狀態 아래에서 緊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年前 靑島暗殺爆發事件과 KAL 機墜事件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인내와 더욱 강열한 平和意志를 실천한 것은 韓半島의 平和가 世界平和에 直結되어 있다는 확고한 信念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얼마전 分斷 40年史에 처음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南北韓 故鄉訪問團과 藝術團이 相互 往來하는 轉機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모든 노력을 더욱 끈질기게 기울여 나감은 물론, 유엔加入의 실현을 통해서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寄與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後 略〉

## 文化藝術人을 위한 午餐時 激勵말씀

1985년 10월 30일

---

〈前 略〉

先進祖國創造와 平和的 統一의 막중한 時代的 使命을 안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국토의 分斷과 同族間의 對決, 國際情勢의 거센 激浪, 그리고 社會的 分化和 階層間의 葛藤 등 對內外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課題들을 解決해 나가야 할 時點에 놓여 있습니다.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송두리째 否定하는 策動과, 外來文物의 무차별적인 浸透, 그리고 産業化의 진행에 따른 價値觀의 혼란 등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도전에 적절하게 對處해 나갈 슬기를 우리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온 文化的 底力과 資產속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政府가 第5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文化창달을 國政指標의 하나로 설정하고 傳統文化의 創造的 繼承, 文化藝術의 專門性和 自律性提高, 文化藝術活動의 支援, 그리고 文化的 成果의 보급을 위한 文化施設의 擴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것도 文化藝術이 지닌 이처럼 막중한 機能과 重要性때문인 것입니다.

〈後 略〉

## 國防大學院 卒業式 論示

1985년 12월 12일

---

〈前 略〉

韓半島를 둘러싼 諸般情勢는 南北韓間에 제한적인 對話와 交流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軍事的 緊張狀態는 激化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을 성취할 수 있는 새 紀元을 보다 빨리 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政府는 앞으로도 모든 誠意와 忍耐를 가지고 계속 南北關係를 改善하여, 對話와 交流, 그리고 協力の 새 시대를 열어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努力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後 略〉

## 「슈뤼터」덴마크首相 내외분을 위한 晚餐時 晚餐辭

1985년 10월 16일

〈前 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韓半島에는 40년에 걸친 南北分斷과 軍事的인 對峙狀態 아래에서 緊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年前 랭군暗殺爆發事件과 KAL 機墜事件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인내와 더욱 강열한 平和意志를 실천한 것은 韓半島의 平和가 世界平和에 直結되어 있다는 확고한 信念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얼마전 分斷 40年史에 처음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南北韓 故鄉訪問團과 藝術團이 相互 往來하는 轉機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모든 노력을 더욱 끈질기게 기울여 나감은 물론, 유엔加入의 실현을 통해서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寄與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後 略〉

## 文化藝術人을 위한 午餐時 激勵말씀

1985년 10월 30일

### <前 略>

先進祖國創造와 平和的 統一의 막중한 時代的 使命을 안고 있는 우리는 지금 국토의 分斷과 同族間의 對決, 國際情勢의 거센 激浪, 그리고 社會的 分化和 階層間의 葛藤 등 對內外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課題들을 解決해 나가야 할 時點에 놓여 있습니다.

民族文化의 正統性을 송두리째 否定하는 策動과, 外來文物의 무차별적인 浸透, 그리고 産業化의 진행에 따른 價値觀의 혼란 등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도전에 적절하게 對處해 나갈 슬기를 우리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온 文化的 底力과 資産속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政府가 第5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文化창달을 國政指標의 하나로 설정하고 傳統文化의 創造的 繼承, 文化藝術의 專門性과 自律性提高, 文化藝術活動의 支援, 그리고 文化的 成果의 보급을 위한 文化施設의 擴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것도 文化藝術이 지닌 이처럼 막중한 機能과 重要性때문인 것입니다.

### <後 略>

## 國防大學院 卒業式 論示

1985년 12월 12일

### <前 略>

韓半島를 둘러싼 諸般情勢는 南北韓間에 제한적인 對話와 交流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軍事的 緊張狀態는 激化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強大國間의 政治的 利害對立도 날카로움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을 막론하고 各國間의 貿易摩擦과 經濟的 葛藤은 第2차 世界大戰을 招來했던 1930年代의 狀況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局面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國際環境속에 「아시아」競技大會를 10個月後에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어 88년에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節次에 의한 政權交替를 이룩하고 서울「올림픽」大會를 개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數年間은 우리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지속하여 先進基盤을 더욱 알차게 다지는 한편, 南北韓間의 對話와 交流를 인내와 성의로 꾸준히 推進하여 平和統一의 與件을 造成하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民族의 運命과 祖國의 未來를 결정짓는 分水嶺에 올라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後 略>



1986년



## 86年度 國政演說

1986년 1월 16일

### <前 略>

우리는 오늘날 세계속의 韓國으로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으로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이 더욱 험해지는, 매우 복잡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정치의 흐름은 질서보다도 무질서이며 안정보다는 불안정으로 치달리는 亂調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局地戰은 빈발하고 있고 폭력주의가 국제사회에 횡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대전의 위험성마저 커가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아래에서 민족의 生存權을 보장하고 통일국가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교에 쏟는 우리의 헌신이 더욱 진지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현대의교는 국가이익을 위해 정부와 정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헌신하는 總力外交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세에 세계사의 조류에 슬기롭게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치르었는가를 생각할 때, 오늘날 總力外交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본인은 올 한해에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 傳統的인 友邦과의 友誼를 더욱 두텁게 다져나가는 것은 물론, 중공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 제 3세계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과 노력을 통하여 경제통상여건을 강화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9월 국토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南과 北으로 갈라선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 6백리길을 오가면서 서로 얼싸안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생각할때, 이것은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5년사이에 남북한관계의 새로운 章을 열어가는데 바쳐진 우리국민 모두의 노고와 인내를 생각하면서, 민족의 화합과 민주통일의 대원칙을 대한민국의 변할 수 없는 國家意志로서 관철되도록 하는데, 본인에게 負荷된 모든 권한과 권능을 다할 것을 엄숙하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아래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 분단이 이루어진 만큼 통일도 우리 세대에서 이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기존의 대화를 지속해 나감은 물론, 북한측의 진실한 자세가 보장되는 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대화의 場을 기꺼이 열어나갈 것입니다.

대화와 더불어 본인은 相互 暴力과 武力使用을 금지하고 남북이 서로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가자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교훈을 체험하였습니다.

같은 민족간에 이제 더 이상 파멸 불행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산이 두번씩이나 피로 물들고,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며, 천진스럽게 뛰어 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헐벗고 굶주리면서 전쟁의 폐허를 해매이게 되는 일만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戰爭抑止力이 미흡하고 自衛意志가 허술하면 우리의 平和熱望은 상대에게 이용되는 약점이 되고 조국통일의 大義는 적화통일의 구실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대화와 아울러 自衛力量의 極大化가 요구되는 이유도 실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軍의 현대화를 지속하면서 戰爭抑止力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켜갈 自主的인 노력이 없는 민족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힘의 논리앞에는 어느 누구의 지원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써 깨우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後 略〉

## 美國 「뉴스 위크」誌와의 會見

1986년 1월 27일

〈前 略〉

문 : 北韓은 최근 南北대화를 중단했다.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金日成과 만날 용의가 있는가?

답 : 金日成과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는 상호신뢰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 남북회담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 측이다.

북한이 언제 다시 남북대화에 응해올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올해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是 남북대화가 그들의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단계라고 말한 바 있으며 그들은 남북대화가 그들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後 略〉

**統一對話關聯 全斗煥 大統領 演說文**

---

1986年 2月 20日 印刷

1986年 2月 21日 發行

國 土 統 一 院

南 北 對 話 事 務 局

---

〈 非 賣 品 〉